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박물관문화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의전당|(재)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문학번역원|국립극단|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국립현대무용단|서울예술단|(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일 시 2025년10월22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에 대하여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20개 기관들은 예술작품 등의 수집·보존 및 전시, 도서 및 정보의 포괄적 수집·보존·정리 및 제공,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국민의 문화 향유 지원, 공연예술의 발전과 확산 및 인재 양성,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소멸위험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 노후화된 도서관 빛 박물관 시설의 개선,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처우 개선 문제,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중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스물다섯 명으로 민인기 국립합창단장이 예정된 공연 일정

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9일로 예정된 종합감사 등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유홍준

학예연구실장 이애령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김희섭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장상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한수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황금숙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성희

기획운영단장 박승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정용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사무처장 송시경

예술의전당

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장호
본부장 김범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용욱
경영본부장직무대리 김가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리 박창준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전수용
경영기획본부장 이정근
국립극단
단장겸 예술감독 박정희
국립발레단
단장겸 예술감독 강수진
국립오페라단
단장겸 예술감독 최상호
국립합창단
경영지원팀장 한상욱
국립현대무용단
단장겸 예술감독 김성용
서울예술단
단장겸 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직무대리 박재현

○**위원장 김교홍**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전달되었고 감사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나머지 기관들의 업무보고는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오늘 2025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심장으로서 조각·회화·공예 등 문화유산 약 250

만 점의 보존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국문화의 진수를 보여 주고 민족적 자존심을 심어 주는 등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하는 데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관객 500만 명을 돌파하여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루브르박물관, 바티칸박물관, 영국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주·부여·공주 등 지방의 소속 박물관 관람객 600만 명을 합치면 프로축구 관중 수를 훨씬 상회하고 프로야구 연간 관중 수 1100만 명과 맞먹는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렇듯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박물관을 찾는 연간 20여 만 명의 외국인 관람객들에게도 K-컬처의 뿌리인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위주로 올해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전란 속에서 평화를 염원했던 인간 이순신과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통해 평화와 국난 극복의 의미를 환기하고자 했습니다.

5쪽입니다.

용산에 터 잡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의 미술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선보였고, 용산 이전 20주년 기념 특별전과 학술행사를 통해 박물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5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28일에 박물관 보존과학센터를 개관입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 수요에 비해 공간이 협소한 어린이박물관을 2029년까지 확장 이전하고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 학예인력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은 최근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K-컬처의 원천 자산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 융합연구와 다각적인 해석을 통해 창조적인 K-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8쪽과 9쪽입니다.

문화유산 융합연구 증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인 2025 CIPA SEOUL—CIPA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의 디지털 헤리티지 국제 협력단체입니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K-뮤지엄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박물관은 전시를 통해 다양한 세계문화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의 문화·예술·역사를 조망한 특별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특

별전을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이슬람실을 신설하고 서양의 주요 미술 흐름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한국의 미와 멋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해외 특별전 개최와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을 통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미국 데너박물관 특별전을 통해 달항아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장품과 미술품을 선보였고 독일 드레스덴박물관 연합 특별전을 통해서 우리 문화유산의 정수를 유럽에 소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11월에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 순회전을 개최합니다. 2027년 1월까지 한국실 지원사업 중장기 거점 3개 박물관에 순차적으로 개최될 이번 전시회는 세계 주요 박물관에서 40여 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한국미술 특별전으로 우리 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문화 외교사절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K-컬처의 확산과 해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 10개국 23개관의 국외박물관 한국실을 전략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평가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업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시대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4쪽부터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창작지원입니다.

문학, 시각, 공연 등 기초예술 분야 예술가들의 예술 창작과 그 성과의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70여 차례에 걸친 예술 현장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2025년 예술지원사업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우수 예술가와 단체를 발굴해서 전국으로 그들의 성과를 확산하고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창작 지원을 다양화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비롯한 예술창작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체인 IFACCA와 공동 주최하는 제10차 문화예술 세계총회를 유치해서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총 94개국, 400여 명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인공지능, 기후위기, 지역공동체 등 복합위기 시대 문화예술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축된 국제 네트워크와 교류 역량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예술인력 육성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활동 기반이 필요한 예비예술인과 청년예술가에게 창작과 발표 기회를 제공해서 올해 1000여 명 이상의 청년예술가들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술 분야의 종사자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1300여 명에게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문화예술 인력 500여 명이 기획, 경영, 무대 등 여러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술정책 및 기부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공연과 후원 프로그램을 펼치며 예술 후원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아트포레스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부·후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해외 선진국들처럼 예술 지원에 기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후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역 예술가·예술단체와 기업 간 후원 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26개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227건의 지역 예술계 및 기업 간의 후원 결연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기업의 예술 후원 활동이 지역까지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 향유 지원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서 264만 명을 대상으로 1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통해서 성년기에 진입한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 관람비용을 지원해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K-컬처, K-아트는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우리 예술가들의 높은 창작 역량의 바탕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난 50여 년 이상 꾸준히 흘러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 5000억에 달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명확한 재원 대책 없이 지출되다 보니 내년에는 완전 고갈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예술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예술창작 지원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은 위원회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정미 문화정책관, 신은향 예술정책관,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예,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증인 신청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무형문화재를 일방적으로 불러서 무료로 공연을 강요했던 당사자이고 종묘를 김건희 카페로 전락시킨 장본인이고 그리고 경회루를 불법적으로 침입하도록 방조했던 장본인인 전 국가유산청장 최웅천을 종감의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부디 해아려서 반드시 최웅천을 종감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박정하 간사님하고 임오경 간사님께서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없지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유홍준 관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주 500만 명 관람객이 돌파하고 세계 5위권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뭐냐면 ‘두루 헤아리며, 깊은 시간에 잠기는 시간’, 중박 사유의 방 입구에 적힌 문구인데요 사유의 방 특징을 참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잠기게 해요, ‘Time to lose yourself deep in wandering thought’. 중박이 이 정도의 기획을 한다면 루브르 박물관 넘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유의 방이 건축가 최옥 님과 탁월한 협업을 통해서 탄생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담당자들이나 또 이런 협업의 아이디어, 최옥 님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기획이야말로 우리나라 박물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워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박물관의 유료 특별 기획전이 어떤 것이 가장 인기가 있었냐, 가장 방문객이 많았냐 이렇게 보니까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결작들’이 전시가 33만이 찾아서 유료 관람객 2위입니다. 그리고 또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전시는 20만 명이 방문해서 유료 관광객 3위였지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사유의 방처럼 우리 자체의 기획이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외부 기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박은 대관 업무였다는 거지요. 이게 1년에 한두 개면 괜찮겠지만 2~3위 정도 관람객이…… 부동산업도 아니고 이렇게 대관, 임대하는 거는 나아갈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 관광객 1위를 기록한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런던 내셔널갤러리 박물관과 중박이 공동 주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박의 학예사가 실제로 영국에 가서 전시품 선정과 기획 과정에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요즘에 내셔널갤러리 편딩 사정이 안 좋으니까 외부 전시 기획사의 전시 패키지를 일괄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가져와서 전시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비엔나전을 할 적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미술부장하고 학예직들이 선정을 했고요. 또 다음 달에 열리는 메트로폴리탄의……

○**조은희 위원** 내셔널갤러리를 제가 여쭤봤어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내셔널갤러리요?

○**조은희 위원** 예.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거는 그냥 가져온 거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국중박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 학예사가 영국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무르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저희 방에 알려 주시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조은희 위원** 앞으로 사유의 방처럼 학예사들이 외국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있고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조은희 위원** 그다음에 보존과학센터가, 인사말씀에 보니까 이제 곧 센터를 개원하던 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존 전문인력 28명이 아니고 절반으로 출발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중박에 보관된 보존 처리가 시급한 A·B등급 유물이 6만 8000점인데 전부 처리하는 데 8년이 아니고 87년이 걸리는데 절반으로 출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래서 이번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예관 1명하고 학예사 1명을 증원받기로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2명 더 넣은 거잖아요. 그래도 절반이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문체부 문화정책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국의 고궁문물원은 150명이고 영국 박물관은 66명이고 루브르 박물관은 150명이고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은 10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이 5위라고 그러는데 28명 달라고 그랬는데 15명, 절반으로 출범하는데 정책관님은 아무 문제 의식을 못 느낍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심한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재부나 행안부 쪽에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져서……

○**조은희 위원** 그거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질책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또 관장님, 하나 더, 지금 전국 14개 박물관 수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수장률이 70.....

○**조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9곳은 80%가 넘고요. 광주, 전주, 청주 3곳은 100%를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5년 안에 9곳의 수장고가 마비될 것이 뻔한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지금 공주박물관의 수장고 증축한 것을 그 사례로 삼아서..... 지금 각 14개가 되는데요 지방 박물관의 유물 수장고를 계속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순차적.....

○**조은희 위원** 그런데 문제가요 재난이 발생하잖아요. 화재나 사고로 수장고 일부가 사용할 수 없을 때 유물을 어디에다 보관할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가 관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박수현 위원입니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장님, 국립중앙도서관의 임무, 도서관법 20조 1항 5호에 의거한 임무가 어떤 것입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을 납본·수집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을 할 수 있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박수현 위원** 도서관법 제20조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관장님, 혹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라는 책 잘 알고 계시지요? 대한민국..... 이거 처음 보십니까? 이게 지난번 9월 7일 날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그런 책인데 그 지적 이후에도 이 책을 알지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직 읽어 보지 못한 책이라, 죄송합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면 잘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이 내용을 알려 드릴 테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법에 의한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본 위원의 질의 이후에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집필한 곳을 보면 대한민국교원조합교과서연구회로 돼 있는데 이 단체가 지난번에 대선 여론 조작에 관여한 리박스쿨과의 교류가 있다고 언론에서 알려진 그런 단체예요. 그건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교수님이셨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학자로서 양심에 의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또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정말 하도 내용이 가관이어서 차마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런 책들이 헌법 위배와 식민사관으로 가득 찬, 차마 읽을 수가 없는 이런 책들이 전국의 79곳의 국립·공립도서관에 여전히 버젓이 소장돼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 9월 7일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용만 국회의원,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지요. 이 지적을 했어요. 이 책이 학교도서관 130곳에 비치가 돼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일부에서.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은 여전히 남아 있는 학교도서관 8곳에 비치돼 있는 이 문제와, 이것이 국공립도서관, 국회도서관에도 있어요, 이 책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뉴라이트, 식민사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제의 징병에 대해서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군인이 되는 것은 입신 출세나 다름없었다’. 위안부와 관련해서 ‘대법원 중언에 따르면 강제 연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전형적인 뉴라이트, 식민사관이고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또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전두환의 하나회에 대해서, 하나회에 참여했던 이 반란군들을 뭐라고 썼냐면 ‘시대의 부름에 따를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던 집단’이라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5·18에 대해서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었고 이 폭동은 전문적인 선동꾼들이 일으켰다’. 이것 독재를 비화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마 참담해서 다 읽지를 못할 지경이고, 제가 전부 다 발췌를 해 왔습니다만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국에 77곳의 국공립도서관 그리고 국회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분원을 포함하면 79군데에 이게 돼 있어요.

관장님, 각 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의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자료 하나를, 여기 보면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탁월한 국제정치 감각과 의견을 가진 초인적인 이승만, 그는 1948년 8월 15일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앞세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이런 사실이 버젓이 기록돼 있고. 또 역대 대통령 평가 부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장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관심도 없다. 그의 정책 또는 행동은 잊혀진 채 그 이미지만 남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 이미지는 그의 죽음으로 더욱 강렬하게 약자이자 피해자로 남게 되었다’. 이런 편향된 책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관장에게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오늘 국감 이후에 즉시 이것을 폐기를 지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위원님……

○박수현 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이게 저희 소관이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묻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발췌했습니다만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 어떻습니까? 폐기돼야 될 책 맞지요? 그 의견도 이야기 못 합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도서관에서 납본 의무는 있지만 그 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박수현 위원** 도서관법 제20조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 드렸듯이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협력을 할 수 있다’까지 돼 있어요. 폭넓게 보면 직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옳다, 그르다는 그 이야기도 못 합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박수현 위원** 됐습니다.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 잠깐 일어나십시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출판인쇄법은 원래 미디어정책국 소관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서관 관련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이 문체부장관에게 이런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출판법에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도서로 지정이 되면 폐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관련된 내용을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 문제에 관해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도서관장으로서 도서관법 20조에 의거해서 이것에 대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의견과 그다음에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종감 전까지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최근 예술계에서 무용계의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특정 인맥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건 데요. 유인촌 전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대거 포진되고 다시 지원금 수혜자가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 사안의 중심에는 성기숙 비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성 위원은 지난해 8월 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위촉 과정 자체가 공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은향 예술정책관님, 문예위 비상임위원 선임 절차는 문체부 주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먼저 문화예술위원을 선정할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 내부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둡니다. 이 소위원회에서 합의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음 PPT 보시면, 성기숙 위원을 추천한 무용 소위원회는 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김궁수 중앙대 교수, 백현순 한국체육대 교수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미 절친한 사이라는 것이지요. 그 해에 예술경영 지원센터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소 삼사 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협업 관계를 맺어왔고 무용계에서는 본래부터 이들이 절친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신은향 국장님, 이해충돌 명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들 스스로 제척이나 기피신청을 안 했지요? 이러면 이거 임면 자체 무효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법상, 규정상 제척·기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원 위원 이게 어떻게 제척사유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법령의 제척사유에는 관련해서 민법 7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혈족이나 배우자,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더 심각한 거 보시지요.

성 위원은 비상임위원 신분으로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무용 분야 전담 심의위원회를 꾸렸는데 구성원을 보면 사실상 다 자기 사람들입니다, 거의.

PPT 다음 거 보면, 문예위 내부 인사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외부 위원 중에 확인된 것만 최소 6명이 성 위원과 밀접한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엮여 있나? 유인촌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했거나 성기숙 위원의 사조직, 무미생의 활동가들입니다. 놀랍게도 성기숙 위원을 문예위원으로 추천해 준 김궁수, 백현순 교수는 물론이고 성 위원과 문예위원 무용 분야를 두고 경합했던 정혜진 회장도 전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문예위원장님, 비상임위원이 자기 인맥으로 외부 위원들을 직접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도 됩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안 됩니다마는 지금 내부 규정상 심사위원은 해당 장르의 비상임위원이 1.5배를 추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1.5배는 내부 직원이 하게……

○김재원 위원 그런데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재원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신은향 국장님,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구린내가 나는데요.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2025년도 문예진흥기금 중에 무용 분야 15건, 총 11억 1000만 원이 성기숙 위원과 밀접한 관계자들한테 돌아갔습니다. 공연예술 창작산실, 공연예술 창작주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등 주요 사업에서 지지 선언 또는 무미생 인사들이 줄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안애순컴퍼니, 문영철 발레뽀에마, 모헤르댄스컴퍼니 서연수,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양정수 등 모두 유인촌 장관 지지 선언 또는 무미생 참여자들입니다.

위원장님, 예술 진흥 아니라 이거 인맥 진흥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또 하나 짚겠습니다.

PPT 다음 거 보시지요.

성기숙 위원은 비상임위원에도 불구하고 1년간 자료 요구 120건, 전체 비상임위원 요구의 65%를 혼자 요청했습니다. 또 다음 PPT 보시면, 이사 직무와 무관한 인사 기록, 노조 현황, 감사실 세부 업무까지 요구하면서 사실상 사무처를 통제한 걸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일부 직원은 정신 상담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예술행정 자율성입니까? 사적 권력 남용으로 보이는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알고 있었고요.

○**김재원 위원** 그런데 그냥 두셨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할 때에는 남발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도 민원으로 그걸 받아들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심사위원회를 결정하는 데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절대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김재원 위원** 저는 지적을 드리고 있는 거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인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지 특정 인맥 밀어 주기 기관이 아니잖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다음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기숙 위원 및 연루 심의위원 전원 직무배제 및 감사 착수를 하셔야겠습니다. 둘째로 2025년도의 무용 분야 지원 결과 전면 재검증하십시오. 셋째, 향후 위원 추천, 심의위원 제척 제도 실질적으로 강화 조치하십시오.

위원장님.....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일단 비상임위원에 대한 제척을 하거나 조치를 하는 거는 저희 위원회의 권한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회가 그런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계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러나 저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 과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거 인맥 카르텔 끊으셔야 됩니다. 즉시 감사 착수하시고 그다음에 무용 분야 지원 결과 전면 재검증하시고 실질적으로 제척 제도 강화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부 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위원** 상부 기관은 문체부입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 **김재원 위원** 문체부에서 같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담당이십니까?

신은향 국장님 담당이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 **김재원 위원** 문체부에서 관리·감독하시겠습니까, 제대로? 감사 착수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살펴보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감사 착수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감사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 **김재원 위원** 아니,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실질적으로 심의위원 추천제도 이것 강화 조치하시라고 그리고 지원 결과 재검증하시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 착수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을 자꾸 돌립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

○ **김재원 위원** 계속해서 감싸 주기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감사담당관실과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검토하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 이런 조치들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아니면 문체부가 인맥 카르텔 지원하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알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이기현 위원님.

○ **이기현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정부 현안보고가 있어서 늦게 와서 제가 질의 순서의 앞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늦게 하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관 중인으로 출석한 정용석 박물관문화재단 사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최웅천 전 유산청장이 직접 사진 속에 등장하고 배석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23년도 경회루 방문 건은 저희가 지난번 유산청 국감 때도 질의했지만 전혀 제 공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유산청이 계속 이렇게 자료제출을 허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건희를 수행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최웅천 유산청장에 대해서 중인 요청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속인 것은 나중에 종감 때 다시 한번 질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유산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인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3년도에 종묘, 경회루 모든 곳에 최웅천 청장이 등장을 합니다. 꼭 중인 채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앞서서 양문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양 간사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따 오후까지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하셨지요? 하셔야지요? 조용히 있으니까.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정용석 사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대한민국 국보 경회루 김건희의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갔나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어제 저도 방송을 보고서……

○**양문석 위원** 왜 갔나요? 빨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9월 12일 날 월대 복원 기념식과 그다음에 UAE 대통령 국왕 국빈 방문……

○**양문석 위원** 보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양문석 위원** 또 초반부터 왜 거짓말을 해?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는 19개월 뒤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두 번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UAE 국왕은 10월 중순쯤에 방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두 번째, 월대 복원 행사를 대통령 부인이 사전 점검을 갔다고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기념식 참석하는 것을 대통령 내외분 참석을 국가유산청……

○**양문석 위원** 대통령 갔어요, 안 갔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양문석 위원** 그때 대통령 갔어요, 안 갔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때 안 가셨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누가 김건희를 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김건희가 온다고 그랬어요? 궁능본부가 요청을 했냐고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당시에 우선 기념 답사 차원에서 아마 설명을 들으시려 간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양문석 위원**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사전에 답사를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때 행사……

○**양문석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사적으로 그냥 갔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전에 행사……

○**양문석 위원** 다시 질문합니다.

김건희가 간다고 했어요, 궁능본부가 오라고 했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우선 기획은 국가유산청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문석 위원** 국가유산청은 그런 경회루 기획한 적이 없고 소통한 적이 없다고 궁능

본부에서는 이야기 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러니까 월대 복원 행사 기념식에 아마 참석을 요청을 드렸……

○ **양문석 위원** 월대 복원 행사와 경회루 가는 부분은 전혀 다른, 공간도 아주 멀고……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런데 UAE 국왕 대통령 내외가 같이 가시는 것을 동시에 진행을 한번 그때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 **양문석 위원** 김건희 변호사는 아프리카 정상회담 회의 때문에 갔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정 사장은 UAE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경회루는 왜 갔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경회루는 국왕 내외분의 동선을 하면서 근정전을 들렀다가 경회루 갔다가 홍복전까지 아마 가신 걸로 저도 그때 기억이 됩니다.

○ **양문석 위원** 동행했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동행했었습니다, 예.

○ **양문석 위원** 어좌에는 왜 앉았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양문석 위원**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근정전에서. 왜 앉았어?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뭘 몰라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어디서 앉으셨……

○ **양문석 위원** 근정전 어좌에 김건희가 앉았어요.

그 부분은 왜 앉았어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때 저는……

○ **양문석 위원**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계속 다 보고 동행했었잖아요.

이 사진에도 현장에는 정용석 있잖아.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양문석 위원** 그 옆에 최용천 있잖아.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금두꺼비로 전설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전 국가교육위원장 있잖아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 **양문석 위원** 그런데 근정전을 왜 갔으며 근정전 어좌에 일반 민간인이 왜 앉았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것은……

○ **양문석 위원**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도 솔직히 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 **양문석 위원**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

○**양문석 위원**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일개 아녀자가……

○**위원장 김교홍** 정용석 증인은 이거 바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양문석 위원** 근정전 들어갔잖아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근정전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양문석 위원** 어좌에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본인이 김건희 스스로 앉은 거예요, 안 그러면 최웅천이 앉으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앉으라고 권유하거나 본인이 했거나 둘 중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도 정확하게는 앉았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

○**양문석 위원** 지난 가을 내내도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증거 나오면 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했던 게 정 사장의 일관된 진술 태도인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끝을 봅시다.

누가 어좌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김건희가 스스로 한번 앉아 보자고 앉은 거예요, 옆에 있던 최웅천이 한번 앉아 보시지요라고 권유했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마……

○**양문석 위원**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양문석 위원** 이보세요!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들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게 이제까지 정 사장이 했던 짓이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죄송합니다.

○**양문석 위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어좌에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김건희가 스스로 앉았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것은 정확하게……

○**양문석 위원**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러니까 근정전에 들어간 것은……

○**양문석 위원**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어좌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하게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양문석 위원** 그놈의 기억은 어떻게 그렇게 편리해? 숨길 때는 기억이 안 난다, 들키면 죄송하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당시에……

○**양문석 위원** 다시 질문합니다.

김건희, 어좌에 스스로 앉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최웅천이 권유했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히 제가, 그 당시에는 문체비서관……

○**양문석 위원** 우리가 제보 봐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문체비서관 계셨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유산청장도 계셨고 또 이배용 위원장도 있었고 수행……

○**양문석 위원**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최웅천하고 정 사장하고 계속

좌우에 서서!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래서……

○ 양문석 위원 가장 가까이에서 귀속말이라도 들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람이 정 사장이요. 언제까지 또 거짓말할 거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두 가지 묻습니다.

김건희가 스스로 앉았느냐, 안 그러면 최웅천이 앉으라고 권유했느냐.

두 번째, 몇 분이나 앉아 있었느냐.

대답하세요. 오늘 대답하고 가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서……

○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주세요.

○ 양문석 위원 정 사장이 답 안 하고 가면 형사처벌로 갑니다.

김건희 스스로 앉았어요, 최웅천이 권유했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권유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

○ 양문석 위원 권유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양문석 위원 그러면 김건희가 스스로 가서 앉은 거야? 김건희가 스스로 가서 앉았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

○ 양문석 위원 좋아.

그러면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도 제가 기억을……

○ 양문석 위원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기억이 안 납니다.

○ 양문석 위원 분으로 따지면 1분 2분 3분 4분 5분, 분으로 따지면 1분 2분 3분 4분 5분?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너무, 저도 잘……

○ 양문석 위원 그러면 앉아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

○ 양문석 위원 앉아서 한마디 안 했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특별하게……

○ 양문석 위원 어좌에 앉아서 한마디도 안 했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양문석 위원 오후 질의에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정용석 사장님, 그 당시에 정 사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문화체육 선임 행정관으로 있었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현직이었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아까 김건희의 뒤에 있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김

전회 옆에 있었잖아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니, 그……

○위원장 김교홍 옆에 있었잖아. 맞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경회루……

○위원장 김교홍 옆에 있었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그 의자에 앉는 것을 몇 분 앉아 있는가는 지금도 선연할 텐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 본 사람이 없어요. 알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그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지금 몇 분 앉아 있었다, 누가 앉으라 그랬느냐를 기억을 못 해요? 못 합니까?

여기 우리 국감장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건 아니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때 이배용 위원장도 계셨고……

○위원장 김교홍 이배용 위원장 평계 대지 말고, 이배용 위원장은 약간 뒤에 떨어져 있었고 정용석 사장하고 최웅천 그 당시의 문화재청장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말씀하시라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누가……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렇게 실실 웃어 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닙니다.

○위원장 김교홍 당신 머릿속에는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답을 하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경회루까지는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솔직히 근정전에 들어갔던 것까지는 기억이 되는데 그……

○위원장 김교홍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문화재청 할 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 그 뒤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안 나왔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뒤에 나온 건데 그 당시 현장에 있었고 바로 옆 자리, 옆에 서서 있었던 정용석 사장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하셔야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란 말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뭐라고요? 아, 본인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위원장 김교홍 그냥 자기가 가서 의자가 있으니까 가서 앉았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이야기 안 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

더라도 오래, 1~2분 정도……

○ **양문석 위원** ‘하더라도’가 아니잖아. 방금 이야기를 했었잖아, 본인이 앉았다고. 그리고 앞서 내가 질문할 때도 본인이 앉았다고. 그러면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지금 그것을 갖다가 밝히라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교홍** 양문석 위원님, 잠깐만요.

내가 보기에는 정용석 사장은 다 알아, 이 내용을.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우리 여야 간에 간사님들하고 위원님들 간에 합의해서 당신 위증죄로 우리가 고발할 수도 있어. 잘 알고 하세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위원장 김교홍** 누구보다도 잘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아주 선연하게 알고 있어. 몇 분 앉아 있었는지 왜…… 아니, 뭐 본인이 그냥 앉았다니까 그것은 이제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연욱 위원** 유홍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얼마 전 9월 24일에 에밀레종이라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 22년 만에 다시 울린 장면이지요. 당시 경주박물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음조사 공개회라고 명명했지만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성덕대왕신종의 타음조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 **정연욱 위원**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은 96년도, 2001년에서 2003년도, 아마 20년도에서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타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도 했고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해 왔습니다.

○ **정연욱 위원** 당시 목적은 종의 보존 상태와 구조적 변화,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이었고 결과에서는 주파수나 진동 이상 크게 없었다, 균열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 **정연욱 위원** 관련해서 관장님이 과거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천년의 소리라는 이 에밀레종이 갖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93년도에 출판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980년에 유명한 이애주 교수의 춤을 위해서 신종 타종을 경주박물관에 요청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이것 내용을 한번 띄워 보시지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200년을 두고 변함없이 울려 왔던 에밀레 종소리가 왜 그쳤는가, 에밀레종에는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다’.

또 한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좋은 쳐야 녹슬지 않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자기 기능을 잃으면 생명이 끊어지듯이, 게다가 지금 종 앞에 달려 있는 나무봉마

저 거두어 버렸으니 에밀레종은 그야말로 박물관 유물로 된 셈이다'. 그래서 한 프랑스 평론가 말을 빌려서 '명작들의 공동묘지에 안치됐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애주 교수의 춤을 위해서 신종 타종을 요청했고 이게 경주박물관과 여러 가지 얘기를 거친 끝에 나중에 한번 결국은 여러 형식을 빌려서 종을 타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렇지 않고요.

○정연욱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이것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 당시에는 아침에 스물여덟 번, 저녁에 서른세 방을 매일 쳐 온 종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93년에.

○정연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출범하시고 다시 문화재청장 가셨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정연욱 위원 그 이후에는 재임 시절에 이 신종에 대한 타음조사나 타종 재개 말씀하신 적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정연욱 위원 그런데 아마 현상변경 신청 건도 별로 없었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에밀리종에 대해서는 왜 보신각종이나 상원사 동종 같은 그런 식의, 그쪽은 좀 균열이나 여러 가지 조짐이 보여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성덕대왕신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걸로 나름대로 나오는 거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없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지금도 에밀리종을 쳐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개인적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하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생각이시냐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쳐야 됩니다.

○정연욱 위원 계속 쳐야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정연욱 위원 그 이유는 뭐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제가 문과생이지만 기계는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걸린다는 그 원칙이 있고 성덕대왕신종은 그 무게가 18.9t에 해당하는 거대한 것이므로, 지금 계속해서 타음조사를 해 온 것 보면 주파수, 맥놀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정연욱 위원 1000년이 넘었는데도?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덕대왕신종을 치는 것이 건강에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정연욱 위원 논란이 있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반반입니다. 쳐야 된다와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 쪽에

서는……

○ 정연욱 위원 저도 전문가 얘기는 죽 들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놓고 아마 타종 여부를 정하는 여러 가지 논란은 다시 또 한참 뒤로 미뤄 놨더라고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문화재위원회 전문가들 회의에서 1회 열다섯 방은 치는 것으로 협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다섯 방을 치는 그 시험 타종 때 기왕이면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에는 시험 타종을 자체적으로 세 방은 해서 주파수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정연욱 위원 저는 이 자체를, 저는 에밀레종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1000년이 넘는 여러 가지 소리를 한번 들려 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여러 가지, 물론 이번에 경주 APEC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했던 약간의 행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왜 자꾸 이렇게 미뤄지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또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감춰 놓고 있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들어 가는 방향의 노력이 있어서 이것은 관장님이 이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한번 각별하게 더 유념해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 쳐야 된다는 그 취지를 더 살리신다면 온 국민들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역사적으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500만 돌파해서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K-컬처 300조, K-관광 외래 관광객 3000만을 얘기했던 이 정부의 정책 기조 검증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관 80년 만에 이런 기대치는 처음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준 누적 관객이 510만 명인데 이 중 외국인은 19만 52명입니다. 4%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끈즈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캐데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매료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작 필요 한 건…… 4%도 안 된다면 과연 이게 국제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세계 5대 박물관에 들어간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약간 자화자찬에 가까운 설명이 약간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의 루브르나 뉴욕의 메트로박물관이나 이 박물관들이 과연 국내 인구가 이렇게 90% 넘는 규모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여러 특징 중의 하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의 문화 향수 수준이 높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적게 오는 것은 현재 통계상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지금 무료 관광……

○ 정연욱 위원 이렇게 보시지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런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K-컬처 300조의 그 베이스는 또다시 관광객을 크게, 외래 관광객을 3000만까지 돌파해서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렇지요.

○ 정연욱 위원 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게 500만이라는 것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거지 이게 본질적으로 내용 자체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애써 보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500만원이라는 숫자에 빠지지 마시고, 자칫하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본 의원실에 종감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30초만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용석 사장님, 오늘 오후 4시까지 그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리포트를 해서 문화재청 통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셨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다 나왔는데, 아셨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형배 위원** 죄송합니다. 제 질의시간이 막 돌아 가고 있어 가지고……

아셨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저렇게 계속 여기서 질문해도 답을 머뭇거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 김교홍**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민형배 위원께서 얘기한 것을 정용석 사장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자료가 넘어올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자료 자체를 문화재청에서 다 수집을 해서, 문화재청의 국장은 여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체부의 담당 국장이 누구지요? 문화재청과 정용석 사장의 의견을 다 받아서 국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오후 4시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유흥준 관장님, 요새 뮤즈하고 밀려드는 관람객 때문에 국중박이 대박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 하고 계시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보고 말씀하실 때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다 그러셨는데 가서 보시니까 제대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정연욱 위원** 진짜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컬처 전성시대라고 하고 지금 국중박이 대박이라고 하는데 제가 우선 박물관·미술관의 학예 전문인력 비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직원 중에 학예 직원 그러니까 행정 직원 말고 전문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학예 직원이 34.6%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65%니까 이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와 같이 성취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게 저희 박물관의 최대의 지금 과제.....

○**민형배 위원** 이것을 풀어 가셔야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니까 베트로폴리탄미술관이 4년 동안 3269억 원을 유물 수집하는 데 썼어요. 저희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금년도에 28억 원이고.....

○**민형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22년인가요, 간송미술관 유물 나왔을 때 입찰에 응찰도 못 하셨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민형배 위원** 그랬다가 그 후에 값이 뚝 떨어져서 어떻게 다시 가져오기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라는 국중박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느냐, 되게 염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심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 증액을 요청하는데 그것도 기계적으로 몇 % 올리는 것 가지고는 전혀 될 수가 없고 파격적으로 현재의 박물관 위상에 맞게 증액할 것을 지금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박물관 내부 구조로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국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로 보면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민형배 위원** 저는 이것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금처럼 K-컬처 전성시대에 걸맞은 그런 가치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래서 저희 13개 소속 박물관, 공주·부여·의산·광주 다 포함해 가지고 각 지방 박물관에 지역문화과를 신설해 가지고 지역문화, 향토문화까지 합쳐서 갈 수 있는 기구 확장을 지금 기재부,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이 K-컬처의 정점이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민형배 위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중박의 책임이 아니고 문체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어쨌든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심장을 자부하고 계시니까 이 국중박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문체부하고 상의하셔서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민형배 위원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동력을 확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꼭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민형배 위원 제가 다른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선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서울예술단하고 국립오페라단 지금 사무국장님이 단장직무대리하고 계시고 최상호 단장님 나오셨지요, 류상록 사무국장님하고? 두 분 다 잠깐 좀 모실게요.

저 자료를 보시면 제가 작년부터 출기차게 해 오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정말 윤석열 정권을 지나면서 1.2%도 되지 않는, 그래서 1.09%까지 떨어졌고.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그래서 대개 2% 정도는, 전체 예산의 2% 정도는 문화부 예산으로 좀 써야 된다 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가장 극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게 국립예술단체 공연이에요. 이게 9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작년 국감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도서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물관·미술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역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두 분, 류상록 직무대행부터 좀 여쭐게요. 서울예술단은 누구 겁니까?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국민의 것입니다.

○민형배 위원 국민의 것입니까?

고생이 많으시지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열심히……

○민형배 위원 그런데 국민의 것인데 왜 대개 수도권 집중으로 운영하십니까?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서울예술단의 현재 본거지가 서울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지방……

○민형배 위원 아니, 국립이잖아요, 다. 국공립이잖아요.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서울에만 하시냐고 제가 묻는 건데.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저희가 지역 공연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지역 14개……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너무 적으니까. 전체의 90%, 팔십구 점 몇 %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그러면 2등 국민입니까, 문화예술 2등 국민?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안 하시잖아요, 실제로.

최상호 단장님, 국립오페라단은 누구 겁니까?

○ **국립오페라단장겸예술감독 최상호**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서울에서만 하세요?

○ **국립오페라단장겸예술감독 최상호** 저희들은 정기 공연은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그밖에 지방 공연을……

○ **민형배 위원** 정기 공연을 부산에서 하면 안 됩니까?

○ **국립오페라단장겸예술감독 최상호** 여러 가지 예전상, 저희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립합창단과 국립심포니와 함께하는 그런 협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예술의전당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렇게 계속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지금 인식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립예술단들, 문화예술 관련한 이 예술단체들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최상호 단장님?

○ **국립오페라단장겸예술감독 최상호** 글쎄요 전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공감을……

○ **민형배 위원** 자, 그러면……

1분만 더 주십시오.

류상록 직무대리님, 반대하십니까?

○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들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 단체를 지적해서 그 단체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은……

○ **민형배 위원** 특정 단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문화부가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지역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 명령이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지역 간의 불균형 때문에 이걸 좀 해소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건데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서울 집중이 계속된다니까요.

○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저희도 서울 집중에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공연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래서 어느 단체가 됐든지 서울에 있는 것을 지역으로 옮기려고 할 때 거기에 반대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하십니까?

○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그게 국민의 의사라면 수용하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최 단장님은?

○ **국립오페라단장겸예술감독 최상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모든 부분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일단 갖춰야 할 것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그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유홍준 관장님, 최근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K-컬처 효과로 인해서 관람객.....

○김승수 위원 민형배 위원 잘했어요. 잘했어요, 질의.

○진종오 위원 저 얘기하는 중인데.....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 좀 다시 주세요.

○위원장 김교홍 다시 드려요.

○진종오 위원 박물관 인기가 너무 많지요? 그리고 관람객도 많이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지난 5일 한 장의 사진으로 잘나가던 이미지가 한 방에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자료 화면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하이브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그리고 방시혁 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박물관 공식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하셨어요. 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보면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하이브 상장 직전에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투자자들 보유 주식을 낮은 가격에 팔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받고 있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예.

○진종오 위원 그리고 본인은 주식 매각 차액으로 총 30%인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해졌고요.

관장님, 협약 추진할 당시에 하이브가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예, 알고 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알고 계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이건 방시혁 개인의 일이 아니고 BTS를 통해서 우리 국중 박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하이브하고 하는데 하이브의 현재 의장은 방시혁이기 때문에 당시 CEO하고 두 사람 같이 해서 업무협약을 하고 그리고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사적으로 방시혁하고 저하고는 같은.....

○진종오 위원 동문이시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미학과 동창이 돼서 기념 촬영을 했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올렸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게 올렸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고.....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그래서 바로 삭제하고.....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삭제를 바로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좀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당연히 BTS라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 같은 거는 저는 찬성하는 바이긴 하지만 이 두 분의 사진이 논란이 된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생각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진종오 위원** 관장님께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좀 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다음부터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다음부터는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게 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신경 쓰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정용욱 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침해 예방교육 그리고 수익 배분 거부나 정산 지연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진종오 위원**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예술 현장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아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찾아가는 교육 포함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해서 열심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만족스러우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진종오 위원** 예, 노력하시는 모습은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술인 신문고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진종오 위원** 최근 5년간 신고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169건이던 신고가 올해는 256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수익 배분 거부라든지 정산 지연, 계약 제한 등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신고가 23년도에는 99건이었다가 올해는 145건으로 또 증가하게 됐고요. 전체 신고 중의 대부분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대표님,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의 월 평균 소득 알고 계십니까? 물론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70% 이상이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작년에 실태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진종오 위원** 정부가 예술인들을 위해서 권리보장법도 만들고 예술인 신문고 창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그 이유와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술인들이 권리 보장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술인 신문고까지 운영하는데?

왜냐하면 담당 인력이 4명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담당 인력이 4명밖에 없다 보니까 신고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처리가 지연된다라는 거지요. 사실상 과부하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보면은 예술인 권리침해 구제 절차 안내 게시글 보면 이 빨간색 네모 안에 ‘다만 현재 인력 부족으로 사실조사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조사하는 데만 6개월이면 사실상으로 구제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왜 구제받기가 어렵냐면 민법 제164조를 볼게요.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왜냐하면 이게 조사가 6개월인데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6개월 뒤에는 소멸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포기하라는 거지요. 기다리다 지치고 포기하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말씀하신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4명 말씀드리면 문체부 본부 조사 담당 직원이고 저희도 사실조사 지원을 위해서 재단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말씀대로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200일 넘게 소요되고 있는데 특히 수익과 관련해 가지고는 채권 소멸시효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지원을 먼저 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문체부랑 함께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인력 충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예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하는 절차인데 기재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정용석 사장님, 경희루에 이배용 위원장은 왜 왔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부속실에서 이배용 위원장의 참석을 아마 요청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오셔 가지고 경복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조계원 위원** 경회루·근정전의 용상에…… 그 용상이 누구 소파입니까? 개인 소파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김건희 장식품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김건희는 자기 과시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가유산을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 장식용으로 소파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가교육위원장이 동석해요? 국가유산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데 불렀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조계원 위원** 조선시대의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인 일본의 총독이 용상에 앉았다가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다 해 가지고 당시 조선 전 국민이 분노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김건희가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말리기는커녕……

문체비서관으로 있었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니요, 저는 문체비서관……

○**조계원 위원** 당시에 말리기는커녕! 지금 어떻게 올라갔는지 사실조차도 눈으로 보고도 똑바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 태도가 뭐예요? 고개 뺏뺏이 세우고!

확실하게 김건희가 스스로 올라갔어요, 슬리퍼 짹싹 신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조계원 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떠올려서 이따 답변해 주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들어가세요.

유홍준 청장님, 국가유산·문화유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조계원 위원** 이번에 김건희가 경회루·근정전의 용상을 개인 소파 취급해서 이렇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했는데 청장님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거듭하고 있는 거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조계원 위원** 종묘를 카페로 이용하질 않나 근정전의 용상을 자신의 소파 취급하지 않나…… 있을 수 없는 자기 과시 중독증에 빠진 여자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권력에 굴종해서 국가유산청장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가로막아서기는커녕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앉아 보시라고. 김건희가 통일시대의 왕을 꿈꿨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왕을 꿈꿨나 봅니다.

지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국립중앙박물관 아까 500만까지 돌파했다면서요. 그리고 굿즈 매출은 124억 원, 제품 수는 2288종에 달하고, 현재까지만 해서도. 더 많은

성과가 나오겠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역 박물관들의 상황은 중앙박물관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굿즈는 아예 제작조차 하지 않고 있고 판매 부진, 적자 우려로 엄두도 못 내지요. 그나마 시도했던 부산시립박물관은 매출이 88만 원 그리고 대구섬유박물관은 935만 원이 전부입니다. 결국 수도권과 지역 박물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제가 관장으로 부임한 지 3개월 됐는데요. 부임하면서, 전에도 느꼈지만 열세 군데에 있는 지방박물관, 여기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 거의 그대로 침체돼 가지고 약 20여 명의 인원이 약 이삼십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니까 자기 발전은 못 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심각한 지금 상황들인데, 너무 심각하지요. 지금 현재 재정 격차, 인력 부족 등 청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후과는 지역에서, 지방에서 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박물관에서 이 지역의 박물관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이것들을 벌리면 그나마 좀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지방시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하고도 만나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열세 개의 박물관이 문화활동의 거점이 되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스페인의 XML 아시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조계원 위원** 인력과 전시, 교육을 공유하는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뮤제 드 프랑스 이걸 통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박물관을 인가해서 국가가 학예사와 보존 전문가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지요. 영국은 또 복권기금을 문화예술 분야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와 국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박물관들도 잘 나가서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정병국 위원장님, 23년에 위원장 되시면서 예술인들이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창작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말씀하셨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손솔 위원** 23년부터 지금까지 검열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 정권 비판했다고 검열당했던 것들이거든요. 검열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손솔 위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떻게 작동됐는지 아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심의위원으로 사무처 직원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심의위원을 사무처 직원으로 하지 않게 하는 거를 조치를 취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백서에도 있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 이전에도 사무처……

○**손솔 위원** 위원장님이 23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잠깐, 사무처 요원이……

○**손솔 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손솔 위원** 23년에 책임심의관제와 같은 구조로 전담심의 제도를 도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무처 직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블랙리스트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무위로 돌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것 잘못된 부분은 먼저 블랙리스트를 할 때……

○**손솔 위원** 제가 질의를 다 하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할 때 심사위원으로 직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직원이 들어가서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어떠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의 지시사항들을 전달을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손솔 위원** 블랙리스트 백서에도 행정 인력을 책임심의위원 제도에 삽입한 것은 예술위 심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헤손한 대표적 사례라고 짚은 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담심의제는 대국민 업무보고 열네 차례를 통해서 현장의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고 단발성으로 끝난다,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전담심의를……

○**손솔 위원** 아니, 예술위에서 블랙리스트 작동한 것의 중심에 사무처가 있었던 거 맞지 않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러나 그것은 사무처가 주체……

○**손솔 위원** 그게 피해 사례의 확실한 것이고, 이 일이 있었던 지 20년, 30년 지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처가 주체적으로 전담심의를 한 건 아니고요.

○**손솔 위원** 아니요, 전담심의제가 책임심의관제 했던 거를 부활시킨 거라니까요.

○**위원장 김교홍** 위원장님, 우선 위원의 질의를 듣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솔 위원** 이 전담심의제가 저는 블랙리스트를 작동하게 했던 구조의 부활이라고 보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닙니다.

○**손솔 위원** 당시에 피해 당사자들 이야기는 안 들으셨어요. 이 블랙리스트의 피해를 받으신 예술인들이나 피해 단체들 이야기는 안 들으셨다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피해 당사자들도 현장 업무보고를 할 때 여러 분들이 오셔 갖고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전담심의제는 절대로 블랙리스트 때의 제도를 복원을 한 게 아니고, 블랙리스트 때에 책임심의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손솔 위원** 아니, 그런데 책임심의관제는 이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도 사무처 직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책임심의관제라고 하는 제도는 없었어요.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손솔 위원** 지금 예술위 위원장이 사무처 전담심의관 전부에 대해서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고요.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입장은 알겠으나 지금 예술인들의 의견은……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제 입장이 아니고요 현장의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제도입니다.

○**손솔 위원** 당시에 이거 도입될 때 피해 당사자들이 입장도 냈고요 피해 단체들이 의견도 냈고요. 그리고 이 사무처 직원을 삽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회의록도 비공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 제기가 분명하게 있는 사안인데 추진하신 거잖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회의록 필요하시다면 다 공개할 의향도 있고요.

○**손솔 위원** 자료 보내 주세요. 자료 보내 주십시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손솔 위원** 예술인복지재단, 제가 문체위로 들어오면서 청년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청년 예술인들한테 예술 활동증명 관련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개인전으로 할 때랑 단체전으로 할 때의 기준이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악동뮤지션을 생각해 보면 악동뮤지션이 같이 콘서트를 하면 이 콘서트에 들어가는 품이 n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작품 하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손솔 위원** 그런데 미술에 있어서는 개인전, 단체전 이렇게 나뉘지고 개인전은 1회 해야, 단체전은 5회 해야 이 활동증명이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갤러리 대관료만 해도 비용이 너무 크고 혼자 감당하실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듀오나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거를 단체전은 다

섯 번 해야 인정이 되고 이런 상황인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 문제가 있는데요. 전시 공간을 지금 대안 공간을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카페에서 한다거나 다른 공간에서 한다고 할 때.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어서요 전시를 할 때 이 전시가 이 공간에서 하는 게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우려 속에서 전시를 하고 나중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결국 청년 예술인들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기준 조차 없이 정성적인 평가를 기대하는 이 조건이 어려운 것이라서요 기준을 좀 확실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제가 예술인에게 받은 의견들이거든요. 이 활동증명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할수록 청년 예술인들에게 부담이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일단 그 기준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 전제로 드리고요. 아까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공동 창작물에 대해서는 n분의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전시회는 단체전 같은 경우는 그냥 1회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정적……

○**손솔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자료를 다시 보내 주십시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정량적으로 자르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정성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올려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어쨌든 청년 예술인들이 이 증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손솔 위원** 지역문화정책관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1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도서 관련해서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 도서는 잘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도서들은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성평등 도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상도 받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도서로 된 책입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에서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열람 제한이 되거나 이런 조치가 있고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담은 웹툰이고요 이게 드라마화도 될 예정인데요. 만화나 웹툰이 오락용이라는 이유로 도서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만 2만여 권이…… 만화, 웹툰은 도서 신청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웹툰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규칙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리박스콜 도서들 아직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이거 바로 열람 제한 조치나 처리를 해야 된다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유홍준 관장님, 이재명 정부 조각할 때 문체부장관 제의가 있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사실입니다.

○김승수 위원 누구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승수 위원 말씀 못 하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왔으면……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하여튼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나이도 있고 여러……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으셨냐고요, 제안을?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직접 받지는 않고 간접으로……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간접으로 전화하신, 통화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 제안을 받으셨는데, 지금 중앙박물관장은 차관급 아닙니까? 장관급 포기하고 차관급 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오히려 박물관장 제의를 받았으면 굉장히 불쾌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관장 제의는 누가 하셨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제가 장관을 하도 강요,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누구한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김현지 실장입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아니에요.

○김승수 위원 아니면 이우종 씨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저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대선클프에서 관장님도 여러 가지 활동하신 거 아닙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제가 앞서 국감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광공사 사장으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이우종 씨와의 그런 관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홍준 관장님께서는 당시 캠프에서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이셨고 그 밑의 수석부위원장이 이우종 아닙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이우종 씨는 문화강국네트워크의 이사장을 했었는데 문화강국네트워크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한 다섯 번의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3차 토론회 때는 관장님이 좌장을 하시고 인사말을 이우종 씨가 했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최근에도 이우종 씨하고 자주 소통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관장된 이후에 한 번 통화하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K-문화강국위원회 해단식에서 만났습니다.

○**김승수 위원** 여러 가지 과거의 관계로 봤을 때 사실은 차관급 중앙박물관장이시지만 유흥준 관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김현지 또 이우종 또 문체비서관 이동연과 더불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 막후 문화권력을 행사하는 그 카르텔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박물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관람객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급증하는 관람객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시설 보완이나 개선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지금 주차장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서 국토부하고 용산공원 쪽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당과 카페가 부족한 것을……

○**김승수 위원** 식당이 지금 3개고 카페가 6개 소인데 거의 수용이 안 되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승수 위원** 사실은 또 외부 식당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안에서 해결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빨리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식당, 카페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 운영합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위탁 운영입니다.

○**김승수 위원** 위탁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위탁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수익에 대해서 관리의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종합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김승수 위원** 그렇게 지금 관람객은 늘고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또 안전요원 이런 부분은, 또 관리 예산 늘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아니요, 전혀 는 것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안전요원은 오히려 줄었고, 중앙박물관 운영 예산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6억 정도 또 줄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줄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김승수 위원** 이렇게 관람객이 늘면 그에 따라서 굉장히 수요, 관리해야 될 인력 수요 이런 것들이 더 급증하고 있을 텐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중앙박물관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김승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전체 중앙박물관 1년 세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김승수 위원** 중앙박물관 1년 세출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운영예산이?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우리 국중박하고 지방박물관 다 합쳐서……

○김승수 위원 지금 중앙박물관만 한 8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김승수 위원 세입은 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전체 박물관 세입이 지금 보면 올해 잡혀 있는 게 23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박물관 입장료는 무료란 말이지요.

입장료 언제 무료됐는지 아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김승수 위원 언제입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승수 위원 지금도 무료로 운영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유료화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무료로 해 온 것이 너무……

○김승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성인은 2000원, 청소년은 1000원 했었는데 지금 1000원만 받아도, 500만 명 중에 100명만 받아도 10억 아니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김승수 위원 500만 명 다 받는다고 치면 1000원 만 해도 50억이고 2000원 하면 그게 100억입니다. 아무리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급증하는 수요에 맞출 수 있다는 거지요.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도 보면 전혀 보강된 게 없습니다. 언어 서비스, 오디오 서비스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는 스페인어조차도 아직까지 추가가 더 안 됐습니다.

.Module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Modules 판매액이 올해 한 200억 넘게 급증했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김승수 위원 그런데 그 수익 중앙박물관에서 쓸 수 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좋은 Modules를 디자인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김승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이번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조금 여유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Modules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온라인에서 솔드 아웃된 것이 많고 지금 중앙박물관 거기숍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국보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 품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기관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을 일시에 주문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루 생산량이 천몇백 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무려 몇천 개를 주문했는데, 사실

은 일반 국민들한테 먼저 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 국민들은 그냥 몇 달씩,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데 특정 기관에 이렇게 몰아주는 게 맞습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건 아주 특수한 예에 해당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예약 순서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승수 위원** 뒤에 넘기세요, PPT.

이렇게 지금 몇천 개를 특정 기관의 선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몰아주고 일반 국민은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이것은 저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 박물관에 우리 국내 한국관 그것 관련해서 굉장히 찾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습니다.

○ **김승수 위원** 저도 몇 번 지적을 했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인력 보강이 전혀 안 됐습니다. 문체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래도 잘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해외 박물관들하고 한국관도 보강을 해야 되지만서도 소장품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국 유물들을 발굴해서 또 그것을 찾아내고 또 상호 교류·전시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인력은 반드시 보강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우리 역사에 아주 애착이 깊은 한 국민의 제보로 인해서 미국 VOA에서 우리 광복의 날 조선의 광복의 소리를 한국어로, 당시 조선말로 처음 알렸던 사료를 발굴해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그 음성을 잠깐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님, 자리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본 히로히토 일왕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라고 패전이라든가 항복이라든가 하는 적극적인 패전의 선언 없이 이렇게 비겁하게 선언했던 내용이 마치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광복을 알린 소리인 줄 알고 저희가 그동안 지냈는데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소개했던 이 한국어를 통한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료를 발굴했다라고 제가 역사학계, 교육계 등의 많은 분들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 사료를 발굴하는 데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협조와 노력이 굉장히 큰 힘이 됐는데요.

본인께서도 고고학자이자 역사학자이시지 않습니까, 학예사이기도 하고.

이 사료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두 가지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45년의 음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해서 전시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료를 더 발굴하기 위해 나서서 지난 8월 29일에 전시실을 개관했지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 **배현진 위원** 처음으로 광복을 알린 목소리라는 상설전시관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과 독립유공자 후손 그리고 광복회원들을 초대해서 개관 행사를 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민들 많이 다녀 가지고 관람객들 많으셨지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 **배현진 위원** 반응이 어떠셨나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사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사료 중심의 자료, 문서들이 많아서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생한 오디오 자료를 통해서 광복의 기쁨을 알리는 코너가 있어서 관람객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 **배현진 위원** 특히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보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전시 개편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이 자리에서 모든 우리 문체 위원님들과 함께하시는 기관장님들께 이 역사박물관의 업적의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소개를 할 때 국회부의장이었던 황성수 KBS 전 앵커가 아마 이것을 하신 것 같다고 소개를 했는데 역사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더 많이 추적을 해서 황성수 앵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진묵 선생이라는 사실을 발굴해 내셨어요.

맞습니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 **배현진 위원** 어떻게 찾아냈지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당시 VOA 관련 자료들이나 사료들을 전시를 위해서 추가 조사를 하던 중에 당시 한국어 방송부의 한국어 담당이 이진묵 선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배현진 위원** 본 위원도 이 지점에 관해서 말씀을 다시 듣고 여기에 관해서 취재를 해서 어제 KBS에도 방송이 되고 했는데요. 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함께 노력하신 학예사들께도 참 잘하셨다라는 격려의 말씀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알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진묵 선생에 대해서 보훈부에서 어떻게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미주 지역에서 그동안 활동하셨던 독립유공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0년에 건국포장에 추서가 된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그 후손을 우리 대한민국이 찾지 못해

가지고 건국포장에 추서를 해 놓고도 서훈을 전달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국정감사가 있기까지 지난 두 달간 미주 지역, 북미 지역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냥 생몰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묘비를 모든 인터넷 웹사이트를 다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이진묵 선생님의 묘비를 찾아내서 생몰 연도 확인을 했고.

이 묘소를 이분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라콤(Lacombe)시에 이진묵 선생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저희가 소통을 해서 이진묵 선생의 아들이신 존 리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에 추서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훈부에 아드님의 인적사항을 제공했고 보훈부에서도 직접 연락이 달게 해 줘서 매우 놀랍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전달하면서 건국포장을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이진묵 선생에게 전달하도록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질의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꺼낸 것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라는 우리 기관이 그냥 전시물을 전시해 놓고 봐라라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역사를 되짚어가는 이 적극적인 행보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여 주는 한 발짝을 뗐다라는 점에서 모두가 함께 같이 기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장들 나와 계시지만 보이지 않은 많은 학예사들과 또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함께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꼭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그동안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정치 그다음에 우리 정권에 따라서 진영 논리에 휘둘려서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특히 박물관의 기관장으로 계신 많은 기관장님들께서는, 역사박물관 포함해셔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모든 발자취를 바로 한 땀 한 땀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기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 **배현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참 어렵게 찾은 이진묵 독립운동가 선생님의 아드님이.....

○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 **배현진 위원** 저희 국회와 또 제가 쑥스럽기는 하지만 의원실로 한마디 인사를 보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뜻깊은 질의였고 또 상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 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경기도 일산 출신 이기현입니다.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사진에 계신 분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 사진에 격자로 표시된 문은 본인 맞으시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 옆에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최용천 국가유산청장으로 기억합니다.

○이기현 위원 본인 뒤에 있는 반팔 입으신 분 누구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 당시 경복궁의 관리소장 등 네다섯 명이 같이 수행을 했었고 부속실에서도 네다섯 명이 수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문체비서관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문체비서관 수행했지요? 문체비서관 그 사진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 사진에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배용 위원장 뒤에 있는 분이 그분 아니에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경호처에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다음 PT 좀 띄워 주시지요.

23년 9월 12일 날 가셨어요. 맞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약 1시간 50분을 가셨어요. 맞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VIP라고 표현된 분이 김건희 맞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협생문 입장했고 근정전, 경회루, 홍복전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약 1시간 50분 동안을 가셨어요. 그렇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 동선이 그냥 걸어가면 제 걸음으로는 5분 거리입니다, 늦으시는 분들은 한 6, 7분 걸릴 수 있겠지만. 동선이 굉장히 깊고요. 그래서 근정전과 경회루, 홍복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지요.

저기가 용상이라고 표현되는데 어좌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좌지요. 맞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문체부 선임행정관 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가셨을 것 같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어좌에 김건희 씨가 앉았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하게는……

○이기현 위원 앉았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아까도 시인하셨어요. 앉았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이기현 위원** 앉았지요. 얼마나 앉았습니까? 시간 기억해 보세요. 근정전에 가서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30분 이상을 머물렀어요. 이동 동선 시간을 보면 30분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우선 그 당시에 이배용 위원장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계속 경복궁 내외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석조물이나 경복궁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 걸어가셔 가지고……

○ **이기현 위원** 됐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은 기억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아까도 계속 질문 나왔습니다만 스스로 앉았습니까, 누구의 권유로 앉았습니까?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하게, 솔직히 기억이 제가 나지는 않는데요. 그……

○ **이기현 위원** 그러면 어좌 사진 하나 다시 한번 띄워 주시지요.

어좌의 기단 높이가 158cm입니다. 웬만한 성인의 키입니다. 저 어좌 뒤에는 일월오봉도라고 하는 왕을 상징하는, 그 당시 조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고.

왕이 어디로 입장했는지 아세요? 계단으로 올라갔을까요? 모르시지요? 전문가 아니시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이기현 위원** 김건희는 앞 계단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일월오봉도 뒤로 올라갔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는 수행하고 있어서 잘 기억이……

○ **이기현 위원**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셨을 것 아니에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 앞에 우선은……

○ **이기현 위원** 앞 계단으로 올라가셨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니, 그……

○ **이기현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유산청장은 이배용 옆에 보통 서 있고 본인 정 사장님께서 그 당시의 선임행정관으로 김건희를 수행해서 가장 옆에서 보좌를 했어요. 저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 앞 계단은 그냥 세어 보면 육안으로 네 계단입니다. 158cm 네 계단이면 성인 여자도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일월오봉도 뒤로 올라가셨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근정전에서는 제가……

○ **이기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가셨냐, 뒤로 올라가셨냐고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뒤에 자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셨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이기현 위원** 앞으로 올라가셨다는 거고요.

올라가라고 한 분 본인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황성운 비서관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황성운 아니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도 그것은 잘……

○이기현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4시까지 자료도 내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이기현 위원 황성운 비서관이 올라가라고 권유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기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갔던 수행원들 중에 문화예술·문화유산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이배용 위원장……

○이기현 위원 이배용 위원장이겠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이기현 위원 이배용 위원장이 11년도에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본인 블로그나 다른 기타에 ‘어좌 이배용’ 치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배용 위원장이 어좌를 친절하게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글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진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에게 ‘저 어좌에 앉아 보라’ 이렇게 권유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

○이기현 위원 그랬던 것 같지요? 전문가시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러지 않으셨……

○이기현 위원 그 자리에 어좌가 어떤 의미인지 어좌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이 이배용 하나라니까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배용이 올라가라고 권유했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하게는……

○이기현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배용이 올라가라고 권유했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기현 위원 1m 58cm 기단입니다. 어좌 높이만 해도 1m예요. 그 위에 또 추가로…… 혼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보좌해서 올라갔어요. 본인이 보좌해서 올라가신 것 아니에요? 사진 다 나올 수 있어요.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는 절대 아닙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라고 했느냐고요. 어좌가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누군가는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이배용 위원장……

○이기현 위원 이배용 위원장이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이배용 위원장이 올라가라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이기현 위원 그렇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을 왜 이랬다 저랬다 바꿔요? 이배용 위원장이 올라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슬리퍼 신고. 맞아요, 틀려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 이기현 위원 맞잖아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상황이 그렇다고.....

○ 이기현 위원 이배용밖에 설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렇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이기현 위원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배용이 문화예술 전문가라고 본인이 사칭하면서, 학자로서는 업적을 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에 올라가려고 저 금거북이를 선물하신 분으로 뇌물을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미 23년부터 김건희와 특수 관계였고, 그 이전이겠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이배용이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권력을 갖고 있는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어좌까지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수행하셨어요.

본인은 의전실 행정관이 아니지요, 문체비서관실이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문체비서관실입니다.

○ 이기현 위원 그런데 김건희가 청와대에서 황제 관람할 때 그리고 경회루에 올라갈 때 그다음에 근정전에 올라갈 때 모든 문화재의 방문 행사 그리고 청와대 방문 행사에 계속 수행을 하셨어요. 본인 부속실 직원 아니잖아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가유산청 행사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지시를 받고 나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 이기현 위원 아까 이배용 섭외한 게 부속실이라고 얘기하셨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 이기현 위원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속실이 1부속실밖에 없었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이기현 위원 대통령을 수행·보좌해야 될 부속실이 이배용을 섭외해서 김건희에게 붙여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속실에서 연락이 와서 이배용 위원장이 일정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1분만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임오경 위원 앞서 양문석 위원님도 중인 요청이 있었고 이기현 위원님도 중인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는 국가유산청이 같이 배석했고 이 관리 책임자로서 반드시 중인으로 나와서 이것 경위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웅천 청장을 다시 한번 중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교홍 두 분이 협의해 보세요.

○임오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어좌라고 했는데 근정전 용상, 경복궁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경복궁 내에서 전시·보존되어 있습니다. 공식 행사나 특별전시 때만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대거나 앓는 것은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이 근정전 용상 같은 데 이렇게 앓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과거에는 대부분 참형, 즉 사형 또는 능지처참, 경우에 따라 가문까지 멸문되는 대역죄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 기준에서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문화재 손상 등의 금지, 누구든지 국보 등 지정 문화재를 훼손·변경·은닉·멸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재판 징역형까지 선고를 받게 되고요. 또 사전 답사에 가서, 문화재 관리책임자가 국가유산청장이지요. 그 누구보다 국보를 보유하고 보존해야 될 그리고 설명을 해서 제지를 해야 될 국가유산청장이 이것을 방관한 경우는 방조죄 그리고 징계, 과태료 모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웅천 전 국가유산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줘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실마리가 완전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정병국 위원장, 8기 예술위원들 발표했을 때 예술계가 어땠던지 그 당시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것 들으셨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임오경 위원 70개 문화예술단체가 반대했었습니다, 임명되실 때. 문화예술계 대표에 5선 정치인을 앓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병국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일정으로 내놓은 말이 뭐였나요? 문예진흥기금 확충 아니었습니까? 당시에도 문화예술단체들은 문예진흥기금 확충이 기금 전입금 법정화 등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힘 있는 정치인 출신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문화예술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임오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화진흥기금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임오경 위원 그랬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 **임오경 위원**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5선 국회의원의 장관 출신 위원장님이 2025년 국감장에서 ‘기금 고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 **임오경 위원** 최대 5000억 원에 달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명확한 재원 대책 없이 지출돼 내년에는 완전 고갈을 앞두고 있다고,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들어와서 실상을 보니까……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 **임오경 위원** 선임돼서 인사말씀과 오늘 2025년도 국감장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고, 왜 그 자리에 앉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5선 국회의원을? 이것은 역행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최대 5273억 원에 달했던 2024년 말 기준 잔액이 552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2003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문예진흥기금 모금 제도가 폐지된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까, 이유였을까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 당시로는 맞습니다.

○ **임오경 위원** 위원회의 법인카드 몇 개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모릅니다.

○ **임오경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가르쳐 주십시오.

○ **임오경 위원** 116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사용됐는지 아세요? 한 해에 10억 7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임직원들 업무추진비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한 해에 2억 27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직원들 출장비는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한 해에 7억 3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관광기금과 체육기금, 일반회계까지 전입받고 2018년부터는 복권기금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관광기금 전입이 중단 됐지요. 당연하지요, 나라 먹여 살릴 관광도 중요하니까요. 타 기금에서 전입을 받아 운영해 왔으면 문체부, 기재부, 국회에 들어오셔서 불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그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니까.

그런데 연봉은 따박따박 받으면서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이 국감장에 나오셔서. 이제는 담배세에서까지 전입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담배소비세는 자자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문예기금 고갈돼서 예술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예술 정책, 예술 창작 지원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뭐……

○ **임오경 위원** 위기예요?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 위원회의 법인카드는 116개 있고 작년에 사용한 것을 봤더니 한 해에 10억 7600만 원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사용할 것 업무 추진비 다 사용하면 사용하고 여행 갈 것 다 가고……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임오경 위원** 그러면서 오늘 국감장에서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러면 저도 답변을 하게 해 주셔야지요.

○**임오경 위원** 어려우면 우리 의원들 방에 한 번 찾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답변을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말씀하십시오.

복권기금 전입 방식, 문화예술 분야 부가세의 문예기금 전입, 관람료 부담금 부과 등등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복권법, 문화예술진흥법, 조특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도 개정해야 하고 지금 발에 불나게 뛰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 한 가지도 지금 해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죽겠다 하지 마시고 장관 출신답게 문체부와 기재부를 붙잡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행 하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으면 지금 이 복권법, 문화예술진흥법, 조특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이것 법 개정 하나 안 하시고 퇴임하실 겁니까? 문화예술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희 민주당 의원을 한번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의원실을 발빠르게 움직이셨습니까?

그런 것 한 번도 안 하시고 오늘 2025년 국감장에서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늘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려울 수 있지만 5선 국회의원님이시면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국회 상황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 내막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이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질의 한번 못 했는데 오늘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지금 막 준비한 겁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마음이 아파서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업적은 남기고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힘을 보태서라도 복권법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조특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다 해서 법 개정에 노력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말씀하신 대로 나름 국회에서 지난해 문예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관건은 결국은 기재위에서 협조가 돼야 되고 기재부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위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당시의 문체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몇몇 분은 오셨지만..... 그 뒤에 거기서 논의된 사항들을 법제화해 달라고 요청도 제가 했고요. 그러나 결국은 기재부가 전혀 꿈쩍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저도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제가 국회의원 당시에도 이것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법안도 냈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안 됐어요. 결국은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더니 위원님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전문가 토론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 발생 부가 가치세 기금으로 전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렸고.

이게 1년에 한 1243억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쓰지 않고 지금과 같이 다른 복권기금이라든지 또 정부 일반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모으게 되면 1조는 우리가 돌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누차 여러 분들한테 드렸고요. 이 과정을 지금 정부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법제화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오경 위원** 그렇게 몇 분들에게만 요청을 하시고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벽이 두꺼워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5선 국회의원급, 장관 출신이 못하면 정부에서 하겠습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하겠습니까? 맨날 국장·과장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장관 때도 안 되더라고요.

○**임오경 위원** 국장들, 과장들 와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장관 때도 안 되더라고요.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러이렇게 한다라고…… 그것을 다 여야 합의를 해서 힘을 모아 주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래서 기재부를 뚫었어야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임오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뭐 하냐고요. 정권 바뀌고 이제 새로 또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뭔가 싸워 주시고 그 대가라도 있었어야지요. 업적이라도 남겨 놓으셨어야지요. 그래야지 여야 합의를 해서 저희가 그걸 뚫어 나갈 거 아닙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하여튼 간에 그동안 그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은 죄송한데요 지금이라도, 저한테 탓하시는 건 좋은데 힘을 합쳐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야 위원들이 잘 힘을 합쳐서 기금이 제대로 더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유홍준 관장님, 잠깐 질문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장관 제의를 받았는데 고사하고 지금의 직을 하시는데 먼저 이 직을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제안하는 측에서 제안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못 들었거든요. 어떤 과정이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인사수석비서실에서 제가 장관후보로 됐으니까 서류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서류는 드리고?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아니,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박정하 위원**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관장직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가 됐나요, 아니

면 이후에 따로 얘기가 됐나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 이후에 또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인사 달에……

○**박정하 위원** 그거는 또 다른 지점?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비서실이 아니고……

○**박정하 위원** 좀 전에 언급하셨던 인사수석실이 아니라 또 다른 쳐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아니고 저를 잘 달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좀 설득을 해서 장관을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박정하 위원** 그거는 장관 고사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의 관장직을 맡게 된 제안을 누가 하셨냐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저보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장관직을 맡아 달라라고 하는 것을 전언을 하신 그분에게 정 저를 정부에서 쓰고 싶으면 차라리 관장을 시키면 그것은 할 수 있겠다……

○**박정하 위원** 그럼 먼저 제안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렇지요.

○**박정하 위원** 경륜상으로 보면은 장관을 충분히 하셔도 되고 이미 문화재청장도 다하시고 굳이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찍어서 하시겠다고 했던 연유는 뭐예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거기가 제 역량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일 맞다고?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박정하 위원** 그럼 앞서 답변 주신…… 8월쯤 임용되셨나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아닙니다. 7월 21일이요.

○**박정하 위원** 7월 21일? 장관하고 차관은 7월 초쯤 되나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아니요, 장관은 저보다 훨씬 뒤에……

○**박정하 위원** 그 뒤였나요? 8월이었나, 7월?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김교홍** 장관은 한참 뒤.

○**박정하 위원** 한참 뒤예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한참 뒤입니다.

○**박정하 위원** 시기는 그런데 그때는 인사수석실이 없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박정하 위원** 인사수석실이 없었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뭐가요? 아니에요.

○**박정하 위원** 용산 대통령실에 인사수석실이 생긴 거는 제 기억에는 9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아니, 하여튼 인사수석이 아니고 인사비서관.

○**박정하 위원** 인사수석실 관계자는 아니고 그러면 인사비서관?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인사비서관이 수석실 소속인데……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인사수석실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인사비서관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박정하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19년경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 광화문시대 위원장 하셨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박정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 안 됐어요.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거를 빨리 포기하게 한 거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게……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이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저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가 어떤 면에서는 낭만적으로 광화문에 집무실을 해서 퇴근 후에 남대문시장에서 소주잔도 마시고 하는 이런 공약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청와대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는 거는 경호상·행정상 근무에 적합치 않은 거는 동의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경호상도 그렇고 그 건물로……

○박정하 위원 애초부터 그러니까 깊게 고민 안 하고 현실성도 별로 없고 한 거를 그냥 핑크빛으로 던져 놓은 것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유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어떤 계산에 의한 조사가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과 가깝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박정하 위원 어찌 됐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박정하 위원 그때 당시 불가능한 거를 이미 관장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냥 대통령께서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했다? 결국에 그러면 핑크빛 얘기잖아요, 국민들 현혹하려고.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아니, 그거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거고……

○박정하 위원 어쨌든 선거 과정에 얘기했던 거를 책임지는 게 정권이지.

거기까지만 할게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그러니까……

○박정하 위원 거기까지만 우선 할게요.

지난주에 국정감사 하면서 제가 문체부장관 대상으로 그다음에 문화재청장 대상으로 K-컬처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이런 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특별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제공한 K-컬처 300조에 대한 실행 방안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이거에 대한 특별한 계획도 없고 문체장관은 심지어 ‘문체부의 실국장 인사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해요. 문화재청장도 그렇고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K-컬처 300조 가지고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3시간 이상 토론했다고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연루된 것도 없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하시면서 많이 문체부에 관여를, 문화정책에 관여를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님 뜻대로 장관직도 고사하고 ‘나 광장 할게, 할랍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실세예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체부나 K-컬처 300조,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이라는 게 자칫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화문 시대하고 같이 그냥

공허한 얘기를 국민들 혼혹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저는 좀 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일단 목표는 그렇게 하고 나갈 만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촉발을……

○**박정하 위원** 지금 목표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보도 나오는 것처럼 쭉 보면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 혼자 그냥 막 달려가고 있는 건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지금 문체부가 혼신의 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을 더욱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각 부처별로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저희 국립중앙박물관도……

○**박정하 위원** 앞서 우리 광화문 시대에 실패했다고, 실패한 거나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게 성공하려면 우리 관장님 같은 분이 좀 더 의지를 갖고 철학을 갖고 분명하게 말씀 주셔야 돼요. 좀 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두루뭉술 답변, 말씀하여 가지고는 이거 또 잘못 가고 우리 5년 허송세월하고 국민들만 또 속는 결과가 나와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소신을 갖고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임용되시기 전이지만 금년 초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고조선 관련 전시하면서 논란이 좀 됐어요, 관계 내용들을 많이 축소해 가지고. 축소해서 논란이 됐는데 9월 달에 들어와서 일부 고조선 전시관 조금 확대하고 했습니다만 고조선이 정말 갖고 있었던 전시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제 의견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고조선에 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지금 13개 검인정 국사교과서에서 나온 것을 충실히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제가 관장이 돼서 초도순시하면서 현재 있는 패널을, 안내 패널에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논쟁을 일으킬까 봐 쓰지 않은 것들을 그걸 무서워서 쓰지 않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황은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다 납득이 안 되는데 조금 이따가 제 질의에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유홍준 관장님,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다들 좋아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에서는 좀 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케데현이다 또 BTS다 해 가지고 K-컬처 문화의 정점을 찍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온 분들이 또 오게 만들고 두 번, 세 번째 온 분들은 지방에 있는 박물관도 찾아가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심장, 대한민국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하루에 한 2만 명꼴 방문하시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예.

○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주차장은 800면이 조금 더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들어가셔야 되고 식당도 별로 제대로 구비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더군다나 용산공원 100만 평이 완전히 완결이 돼서 개방하게 되면 방문객 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지금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는 용산공원의 부지를 우리하고 일부분을 합필해 주면 우리가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채워서 보강을 할 수 있어서 현재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공원 옆에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바로 붙여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교홍 붙여 있으니까 거기마다 공원을 좀 쪼개서 주차장 만드는 거. 그러면 그럴 때 식당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예.

○ 위원장 김교홍 그걸 꼭 했으면 좋겠고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예.

○ 위원장 김교홍 중앙박물관이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데 지방 박물관은 턱없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또 하나 히트 친 게 까치호랑이라든가, 이거 제가 갖고 있어요.

(미니어처를 들어 보이며)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이거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지방 박물관도 이런 굿즈를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경주박물관에 가면 신라 굿즈, 부여박물관에 가면 백제 굿즈, 전주박물관에 가면 조선 굿즈 이런 거를 좀 해서 한다든가 또는 지금 중앙박물관과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중앙박물관을 보면 지방 박물관에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연속성 이렇게 해서 지방 박물관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국중박에서 만든 뮤즈를 지방 박물관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자체 내에서도 개발을 하게 하는데, 개발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뮤즈가 성공한 거의 반은 일반 공모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디자인이 반이고 일반 공모인데……

○위원장 김교홍 그게 중요하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젊은 사람들이 서너 명이 모여 가지고 뮤즈를 해서 국중박에 납품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꿈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곤룡포 타월 같은 그런 히트작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 공모를 촉발하기 위해서 박물관에서는 문화상품 개발자를 위한 한국 공예의 아름다움이라는 특강을 마련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강연했고 뒤이어서 도자기·복식 전문가들이 우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면세점에는 안 나가나요, 뮤즈가?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면세점에 일부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일부가 나가 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위원장 김교홍 그것도 면세점에도 갖다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박창준 직무대리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 예술강사 지원하고 그러지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국비가 깎여도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예.

○위원장 김교홍 예술강사 평균 봉급이, 월급이 119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감소됐지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예, 그게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요.

○위원장 김교홍 12개월로 해야지 그러면 두 달은 안 삽니까? 맞지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예, 12개월로 하면 그렇고 10개월로 하면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우리 아이들, 초중고의 아이들이 보면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 8개 분야를 이 예술강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예.

○위원장 김교홍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예술 쪽의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의 꿈을 키우는 거예요. BTS의 한 멤버는 초등학교 때 무용강사를 통해서 자기가 가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없어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지금 현재 문체부하고 같이……

○위원장 김교홍 여러분들은 주는 예산만 가지면 그냥 그거 갖고 운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문체부도, 이것 담당 국장이 누구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문화정책관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리고 국회에다가도 얘기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하고 이렇게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지. 윤석열 정부 때 이게 완전히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시·도교육청에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는 다 깎이고. 맞지요? 거의 그런 형국이 돼 버린 거 아니에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예, 많이 깎였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많이 깎인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시·도교육청만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과악해 보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노력하고 문체부의 담당 국·과장님도 노력하고 국회도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내년 예산안은 완전히…… 이번에 좀 올라와 있어요, 예산에. 그렇지요? 이거보다 더 좀 올려서 활기차게 우리 아이들이 문화예술 쪽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앉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이기현 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만……

○**위원장 김교홍** 하세요.

○**이기현 위원** 아까 정용석 증인에 의해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장이 근정전 어좌에 김건희가 앉도록 권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배용?

○**이기현 위원** 예, 이배용.

○**위원장 김교홍** 이배용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해 가지고 저기 했는데,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이기현 위원** 다시 한번 합의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여야 간사님들이 꼭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끝나고 협의해 보시지요.

○**박정하 위원** 아니요, 협의 말고 저도 추가 증인 요청을 좀 드리려고요.

○**위원장 김교홍** 그래요?

○**박정하 위원** 제가 보면 정부 출범한 지 넉 달 이상 지나가고 초기부터 우리 정말 중요한 K-컬처 300조 얘기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대중문화예술진흥위에서 우리 박진영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체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제가 볼 때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요청드렸던 것처럼 박진영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 주시고 여야 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때는 문체부장관이 아직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안 했거든요.

○박정하 위원 회의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아니, 구성 중에 있다.

○박정하 위원 지금 이미 구성 다 됐거든요. 다 됐어요.

○임오경 위원 구성이 됐고 아직 회의를 공식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위원장 김교홍 거기에 대한 회의는……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요, 앞으로 구상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 김교홍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는 안 하고 구성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점심 드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주세요, 꼭. 그래서 지금 나온 분들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증인 채택이 되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은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한 분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상철 한국문화진흥(주) 대표이사는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오늘 오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증인으로 했는데 오늘 안 나오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거는 우리 국회에서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만 이상철 증인은 출석요구일 당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김정환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직 직원, 남웅 인권활동가 겸 미술평론가, 박성혜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 박주옥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송치훈 한국문화진흥(주) 노조위원장 등 총 다섯 분입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문석 위원께서 신청하신 장동광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장동광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솔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정환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김정환 예.

○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손솔 위원께서 신청하신 남옹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남옹 예.

○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김승수 위원께서 신청하신 박성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박성혜 예.

○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김재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박주옥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박주옥 예.

○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송치훈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송치훈 예.

○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동광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동광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장동광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증인 장동광

○ 위원장 김교홍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옥 참고인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시간 3분까지 당겨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하세요.

○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박주옥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님, 2022년 1월에 취임하셨지요? 관장님 취임 이후에 종류 불문하고 몇 개월 동안 도서관 공사 진행하셨습니까?

○참고인 박주옥 저희가 81년에 건립된 도서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노후시설이 있어서……

○김재원 위원 짧게 가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조사해 보니까 한 해 동안 무려 10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심지어 1년 내내 공사 중이었고요. 그 이후로도 매년 반년이 넘도록 공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내면 1년에 9개월은 계속 공사 중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공사로 자료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용 공간 휴설이 너무 잦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 건 보니까 총 53건, 약 23억 원인데 게다가 이 중에 49건이 수의계약입니다.

PPT 다음 거 주시면 관장님,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공사 계약 체결한 사실 있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 반드시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에 도급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법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공 자격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남발하게 되니까 결국 자격 미달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아이들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을 하는 곳인데요. 즉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는 공간인데 관장님, 어떻게 법령도 안전기준도 행정 책임도 모두 무시된 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참고인 박주옥 저희가 시설 공사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일부 공사를 하였지만 전체 이용서비스 공간을 따져 보면 평균 한 3% 미만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나마도 끊임 없는 이용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옮겨서 이용서비스 진행을 계속하였고요.

그리고 금속이나 창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만 금속·창호의 경우 1500만 원 이상일 때는 전문등록업체로 등록된 곳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실수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김재원 위원 실수 아니라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일이고요.

○참고인 박주옥 예, 그래서 문체부로부터……

○김재원 위원 지금 이런 PPT로만 간단히 보여 드리고 있는데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시설 이용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림책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 창작공간 제공하는 작가창작실 역시 문제인데 PPT를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간 구성과 접근 동선 모두가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용 편의성 매우 떨어지고요, 관련 규정이나 운영지침도 없지요. 그래서 이용 시간, 예약 방식, 자격 기준 등의 기본적인 관리체계도 없고 이용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서 직원들조차도 월별 이용률, 실질적 활용도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도 없이 관리되지 않는 공간이라면 이 사업이 과연 작가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이행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 조성 목적 그다음에 성과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장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된 이용자가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맞습니까?

○참고인 박주옥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최우선 가치가 안전과 범죄예방이어야 하는데 PPT 보시면 과거에 여기가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지하 2층 휴게공간 ‘휴담소’라는 곳인데요, 상주인력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상주인력도 없는데 CCTV, 비상벨, 출입 통제, 순찰 주기, 대응 시간 등 최소 안전 매뉴얼 존재합니까?

○참고인 박주옥 저희가 청원경찰과 방호직원이 24시간 CCTV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주말에는 저희가 상주인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매뉴얼……

○김재원 위원 왜 상시인력 배치하지 않는 거지요? 여기 지하공간인데 CCTV 가끔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무슨 범죄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랑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면서요.

공사로 인한 이용 제한은 반복을 하면서 운영상 안전조치는 비워 둔 행정을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장님, 각종 불필요한 공사, 안전체계, 작가 및 방문자 이용공간 활성화 등 기관 운영에 대해서 전면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와 후속조치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박주옥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장호 대표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회는 입법, 제정, 행정부 견제 등 국가 운영 핵심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오전 질의 때 보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공무원들의 국회 무시가 아주 고착화됐습니다. 규정상 어긋나지 않는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미비한 규정으로 불공정 정황이 발견되면 지적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요. 잘 듣고 조치하면 될 일인데 규정에 기대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사업, 공모와 심의를 거쳐서 대상 선정하게 되는 것 맞지요, 김장호 대표님?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PPT 주시지요.

과거 유인촌 장관 내정자를 공개 지지한 무용계 인사들 명단 1차, 2차에 걸쳐서 발표했는데 이들 중의 일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시행한 주요 무용 분야 지원 사업의 심의나 평가 또는 간접적인 추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시행한 2024년도 무용 분야 선정 결과 보면 심각하게 편중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2개 사업만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유인촌 전 문체부장관 지지 선언했던 인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무려 9곳 선정이 됐

고요.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유통 사업 경우 선정된 단체 대표 중 지지 선언 인사 비율이 33.3%, 지원받은 금액은 총 1억 3200만 원.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 지지 선언 인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 비율이 54%, 지원 금액 6억 76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이 특정 세력에 집중됐습니다.

공정해야 될 기관 공모 심의 절차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영향력 행사하고 그 결과가 지원금 편중으로 이어졌다면 문화행정의 정치화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제기하자 유인촌 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용계 지지 선언 인사들이 대거 선정되고 예산이 편중된 현 상황이 장관이 말한 결과입니까? 장관 발언 이후에 이런 결과 나타난 거라면 명백하게 정치적 개입의 정횡이 드러난 거지요.

다음 PPT 보시지요.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년도 무용 분야 심의위원 구성 보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 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86%입니다. 지지 선언 참여 인사들이고,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 10명 중 6명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게 화이트리스트 아니면 도대체 뭐가 화이트리스트입니까?

심지어 공연예술 유통,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지원 사업 무용 분야 심의위원이었던 백현순·조윤라 심의위원,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 무용 분야에 본인들이 지원자로 선정됐습니다, 신청해서.

대표님, 같은 시기에 하는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이었다가 또 선정자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이들 심사위원 중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성기숙 위원이 있습니다. 이 위원은 앞선 사업에서 백현순·조윤라와 함께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해당 심의에서 회피 건수 0건입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심의위원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인촌 전 문체부장관 지지 선언부터 핵심은 뭐냐 하면 심의의 공정성이 아니라 이들의 정치적 연계성입니다. 이런 일이 2024년에만 있었느냐고요? 2025년에도 동일한 구조 반복되고 있습니다.

25년 공연예술 유통 지원 사업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정혜진 위원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정혜진 무용단’이 사업에 지원해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명백한 이해 충돌이자 공모 심의의 근본 취지 훼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구조 반복된다면 기관의 공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의 절차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김재원 위원 잠시만요, 말씀 더 드리고 그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무미생,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8월에 성기숙 위원이 주도해서 발족한 단체인데 성기숙, 백현순, 조윤라 등 일부 인사들이 무용계 지원 사업에 해마다 조직력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결집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과연 공정성 지켜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예경이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유인촌 지지 세력 밀어 주기 세력입니까?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전면 감사 조치하시고 심의 선정 과정 개입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공모 심의 시스템 전면 재점검해서 의원실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모 선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 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다만 거기의 선발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추출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그것도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규정이 미비하다고 아까 신은향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규정을 고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지요. 지금도 변명 일색 아니십니까?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답변을……

○김재원 위원 제가 지적한 대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를 하겠고요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처럼, 오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김교홍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김재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

그러면 다음은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자료 요청하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교홍 하세요.

○양문석 위원 예.

정용석 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 계속해서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거든요.

처음에 누가 권유했느냐라고 제가 질의했었을 때 김건희가 자진해서 앉았다라고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장께서 질의하셨을 때 또 자진해서 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저한테 얘기해요.

○양문석 위원 그리고 이기현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이배용이 권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자필로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써 달라고 해 주세요.

두 번째, 그날 제가 질의할 때 궁능본부에서 요청해서 일정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능본부냐, 안 그러면 김건희 지시사항이냐를 자필로 다음 질의하기 전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 당일 현재 밝혀진 이배용 그다음에 당시의 국가유산청장 최웅천 그리고 정용석 외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필로 제가 증인 질의한 이후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아까 4시까지 문체부의 국장 주관하에 정용석 대표하고 문화재청하고 해서 문체부 국장이 저한테 답변서를 내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 내용도 다 들어갈 텐데 그게 궁능본부에서 한 건지 김건희가 직접 요구한 건지 또 이배용, 최웅천, 정용석 외에 누가 있었는지 또 누가 얘기해서 자리에 앉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4시까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질의하시지요.

○양문석 위원 장동광 원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유배를 당한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과 같이 이 자리에서 임기 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술적, 학문적 성과를 창출하겠다. 국외 출장 동안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들이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 것이 괴로우며, 그럴 만한 일인지 의문이다. 누군가를 이렇게 모함하고 음해하여 상처를 준 사람도 나 같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혹시 이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어요, 이런 이야기?

○증인 장동광 예, 아마 제 소회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추사 김정희와 다산 정약용까지 끌어들이면서 성희롱에 대한 자기의 변명을 이렇게 늘어 놓고 모함을 당하는 것이 괴로우며 그럴 만한 일인지 의문이다. 나 같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사실상 협박이지요. 피해자 앞에 앉아 있는 데서 이랬지요?

아니,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박이고 제2차 가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체부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 보셨지요?

○증인 장동광 예, 봤습니다.

○양문석 위원 문체부에서 전원 성희롱이라고 판정했지요?

○증인 장동광 예, 일부 인정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뭘 일부 인정해요? 신청서에서 나온 것들은 다 판정했고 그리고 추가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전원 찬성이었잖아요.

- 증인 장동광 예, 그렇습니다.
- 양문석 위원 이 상황에서 교육 권고 10시간 이상 받았지요?
- 증인 장동광 예.
- 양문석 위원 그리고 2차 피해 철저 예방, 여기에 대해서 요청받았지요?
- 증인 장동광 예, 맞습니다.
- 양문석 위원 그런데 이 피해자가 있는 데서 추사 김정희와 다산 정약용을 들먹이면서 그럴 만한 일이었는지 의문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 증인 장동광 그건 피해자 앞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양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잘못이 없다?
- 증인 장동광 아닙니다.
- 양문석 위원 잘못했어요, 그러면?
- 증인 장동광 잘못했지요.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 양문석 위원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잘못했다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 증인 장동광 예, 제가 잠깐 그 전반……
- 양문석 위원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지금 사과하세요.
- 증인 장동광 특정한 사람을 지칭할 수 없었지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 양문석 위원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 증인 장동광 성희롱적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가 컸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컸다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 증인 장동광 제가 일부 인정했다고 말씀……
- 양문석 위원 일부 인정했는데 ‘컸다면’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이야기했는데 ‘컸다면’요? 다시 사과해 보세요.
- 증인 장동광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좀……
- 양문석 위원 다시 사과하세요.
- 증인 장동광 예, 제가 성희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 사과드립니다.
- 양문석 위원 정돈해서 제가 그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세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 증인 장동광 이 일로 인해서 피해받은 당사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 양문석 위원 그만하세요.
- 증인 장동광 제가……
- 양문석 위원 지금 원장은요 같은 건물에 3개 층을 쓰고 그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데서 계속 회의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향해서 ‘네도 한번 당해 봐라’라고 한 이야기예요, 앞의 이야기가.
-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사과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똑같이 읽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모함하고 음해하여 상처를 준 사람도 나와 같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증인 장동광 제가 잠깐 조금 팬찮으시면 설명을……

○양문석 위원 아니, 잠깐 하지 마시고. 본인, 당사자를 앓혀 놓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얻다 대고 추사 김정희 선생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을 갖다 불여요?

○증인 장동광 그 전체……

○양문석 위원 자, 그다음……

○증인 장동광 제가 한말씀 조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그다음이요.

문화역서울284 기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증인 장동광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파리에서 양리 마티스 전 보고요 이것이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춤을 추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양문석 위원 그만하세요. 그게 2차 가해예요!

○증인 장동광 그게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양문석 위원 보세요, 인정한다며!

○증인 장동광 이것이 성희롱이라는 것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그것을 비평적인 소감으로 얘기한 거지 특정한 대상을 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양문석 위원 인정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증인 장동광 한 가지 그……

○양문석 위원 이것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게 2차 가해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문화부에서 성희롱이라고 분명히 판시했고 본인도 스스로 인정했고,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무슨 변명을 여기서 이야기하면…… 결국 ‘피해를 입었고 상처를 입었다면’하고 가정법을 쓰는 거잖아요.

○증인 장동광 저도 이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만하세요! 세상 사람 다 알겠네.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시지요.

○증인 장동광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언행을 아주 유념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태도면 당장 그 자리 그만둬야 돼요. 그 자리 그만둬야 돼요. 뭘 또 앞으로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 책임을 지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만둬야지요.

○위원장 김교홍 양문석 위원님……

증인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증인 장동광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정정하고 싶은……

○양문석 위원 지금 말을 하는 게 전형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성희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장동광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정정하고 싶은 것은 당시 출장을 갔던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저를 포함하면 5명인데 계약직 여직원 2명하고 남자 팀장 1명이 있고요. 한 사람은 퇴사를 했는데……

○양문석 위원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하시라고요.

○증인 장동광 당시 그 4명이 타고 오는, 숙소로 이동하는 20분 정도 거리에서 제가 했던 이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했던 것인데……

○이기현 위원 더 하시면 2차 가해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증인 장동광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팀장은 4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팀장은. 그리고 2층하고……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증인은 아까 사과한 게 진정한 사과가 아닌가 보지요, 자꾸만 평계를 대는 것 보면?

○증인 장동광 제가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여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사과를 하면 진정하게 사과를 하시고 거기서 끝을 내야지 계속 말씀을 부연하면 양문석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고 이렇게 되는데?

○증인 장동광 예, 이것이 성적인 어떤……

○위원장 김교홍 잘못한 것은 맞지요?

○증인 장동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진정하게 사과를 분명히 마지막으로 하세요.

○증인 장동광 이걸로 인해서, 성희롱적 발언이 심적으로나 위축감을 느꼈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느꼈다면’이 아니잖아요. 느꼈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본인의 발언에 의해서 느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사과를 하셔야지 무슨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양문석 위원 내가 때렸는데 ‘아프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증인 장동광 죄송합니다. 제가 심적인……

○양문석 위원 두들겨 패고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런데 뭐……

○위원장 김교홍 다시 말씀해 보세요.

○증인 장동광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증인 불출

석과 관련해세요.

○위원장 김교홍 예.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은 해 주셨지만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철 한국문화진흥원(주) 대표이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심한 편두통과 구토를 동반한 어지러움증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철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는 법이 정한 이 기한을 무시하고 어기고 제출된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행위입니다.

더욱이 증인은 한국문화진흥원 대표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서 이미 문체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성립 판정을 받아 이사회에서 어제 날짜로 해임이 결정된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도덕적 책임에 대한 사죄 한마디 없이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상철 대표의 불출석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문체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여야 간의 간사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조계원 위원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송치훈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문예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질의에서도 이상철 대표는 자격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경고드렸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국 상습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부당한 업무 협약 그리고 경영 실패까지, 완전히 문화예술위원회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서 한국문화진흥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냥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 책임을 인정하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지난 질의뿐만 아니라 문체부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었고 6월 25일 현안질의에서도 문체부의 늄장 대응을 질타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두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문화진흥의 지도·감독 기관맞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은 그때 조사를 늄장으로 대응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하셨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5월 7일 날 이 성명서가 게시됐다고 하고요. 저희가 인지가 된 것은 5월 9일 날 인지가 됐고 바로 원칙에 따라서 격리 조치하도록 했는데……

○**조계원 위원** 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 당시까지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특정이 되자마자 그다음 날……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특정을 지시했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지시를 했고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그 특정이 되자마자 바로 분리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좀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질의와 관련해서 결과가 8월 26일 날 통보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희롱 성립, 성희롱 성립 이게 다 인정이 되고 있지요. 보이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보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보시지요.

성희롱 사진 잠깐만 틀어 보시지요.

어깨를 주무르시고 저게 지금 일회성으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고 저렇게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조계원 위원** 저게 위원장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칙대로 조치를 하도록 했고, 최대한 저희들은 원칙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시 다음 화면이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런데 저렇게 안마를 시키고 손과 팔을 잡고 주물러 달라 하고 어깨나 손을 직접 만지고 겉옷을 들추고 이러한 행위를 했어요. 이러한 행위를 한 결과 결국 성희롱이 성립되었고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탄원서를 본인의 수행비서를 시켜서 대표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요 간부들이 서명을 하고 레스토랑 카운트에 서명지를 비치해서 탄원서를 받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2차 가해だ라고 저희가 명시를 했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사실상 직원들에게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아닙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이요.

이게 문화진흥 임원 비위와 관련된 감사 범위 및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대표이사 직무수행 관련 내부통제 준수 및 관리 미흡, 전무이사 직무수행 관련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 준수 미흡, 임원 선임 절차 보완 필요 그리고 계약업무의 효율성·공정성·투명성 제고, 계약까지도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틀어 보시지요. 다음 화면이요.

이상철 대표가 인연이 있었던 태국 파타나 리조트와 MOU 체결했는데 뉴서울CC를 이용한 파타나 리조트 쪽은 한 명도 단 한 건도 뉴서울CC를 이용한 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해 놓고 보도자료는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요. 그렇지요?

이 정도면 조직을 관리한 게 아니라 아예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결과 경영 평가는 이상철 대표 취임 이후 연속 C, 고객 만족도는 역대 최저치를 계속 기록했고 입장객 수도 6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두텁다며 이를 과시하고 다니던 이상철 대표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없었고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다라고 말씀을……

○조계원 위원 오히려 더 두둔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화면이요.

골프 산업 분야와 관련한 지식도 전혀 없었던 분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두둔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국감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임명한 사장이 어떤 비리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 위원장께서 하신 말이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참고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인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물어볼 수 없는데 이상철 대표 자녀 결혼식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참석했다는데 이것 아시는 바가 있는지 그리고 성희룡 사건 이후 지금 직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 그리고 감사 결과나 또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조나 직원들이 갖는 문제점이나 제기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송치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해임된 이상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이나 또 저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골프장에 있는 회원들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그런 내용은 상시적으로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 성희룡 사건 이후에, 제가 지금 국감에 출석한 이유는 직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기관장 그다음에 전무이사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임원들에 대한 비위로 직원들이 내년도 경영평가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잘 살피셔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솔직히 이 국감장에 나온 이유입니다.

○조계원 위원 가슴을 좀 진정하시고요.

○참고인 송치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고……

○참고인 송치훈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경영 상태도 너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한마디 해 주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임 사장 비위 견으로 인해서 법원 판결 나온 결과가 거기에 연루됐던 직원들이 15명입니다. 그런데 그 15명 중의 일부를 그대로 현직에 두고 쓰려고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원칙대로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해 가지고 필드로 내보낸다거나 다른 쪽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어수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위낙에 그동안 많이 부패했고 누적됐던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의 직원들을 며칠을 상주시키기까지 했고요. 지금 얼마 단위 이상은 직접 결재를 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드라든지 골프장 관리라든지 상태는 많은 호평들을, 변화가 됐다 하는 호평들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계원 위원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시지요.

○조계원 위원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의원실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노조하고 다시 한번, 상급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직접 면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3분까지 함께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손솔 위원 공진원 원장님, 저희 의원실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자료 온 거 알고 계세요?

○증인 장동광 예,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다 합이 안 맞는 거 알고 계시지요?

○증인 장동광 예.

○손솔 위원 알리오랑도 안 맞고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도 안 맞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오시고 업무추진비 대단히 많이 늘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이랑…… 이제는 맞춰 보셨습니까?

○증인 장동광 예, 전수조사를 시켜서 지금 그걸 맞춰서……

○손솔 위원 저희 의원실로 자료 보내 주세요.

○증인 장동광 예, 자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손솔 위원** 그리고 이 자리는 성비위 관련해서 변명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자료 보내 주십시오.

○**증인 장동광** 예, 그려겠습니다.

○**손솔 위원** 남웅 평론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남웅** 미술평론가 남웅입니다. 인권활동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올해 초에 경험한 검열 피해를 진술하고 앞으로 공공 미술관에서 검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손솔 위원** 검열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시거든요. 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남웅** 서울시립미술관의 산하기관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서 3월부터 7월 까지 진행한 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강에 스며든다’라는 전시인데 제가 그 도록의 비평문으로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미술관에서는 정세에 기반해서 사회참여미술을 진단하고 그리고 아카이브 실천에 대한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써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글을 쓰는 동안 계엄과 탄핵 정국을 맞았고요 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글을 미술관에 전했을 때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게재가 어려울 수 있다, 나중에는 게재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물었고 그것이 제 글의 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검열일 수 있다, 검열이고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그것이 소통의 문제였다라고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소통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누가 그런 통보를 했는지 그 루트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서울시립관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글이 참고인이 쓴 글의 서두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거의 사실관계를 쓴 거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습니다.

화면 넘겨 주시면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해 보기로는 통보 전에 참고인의 글에 대한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고 그 표현을 제한한 건 명백한 검열입니다. 지금도 서울시립미술관은 검열이 아니고 소통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립미술관의 태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요?

○**참고인 남웅** 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글을 다시 신겠다, 이것이 소통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제가 글을 다시 신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올해 단체 의제로, 기관 의제로 행동을 내세웠습니다. 그 만큼 진취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뭔가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일 텐데 그런 기관마저도 검열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통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검열을 부정하고 이 사건을 일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이런 미술기관들이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예술 창작자들에게 어떤 검열과 개입을 하는지, 일

방적으로 하는지도 좀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솔 위원** 참고인께서 검열 피해가 앞으로 더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남웅** 대개 검열은 엄정한 절차에 거쳐서 판단이 되더라도 문제적이지만 보통은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이나 정세에 따라서 정세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그만큼 검열은 사소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인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기관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그만큼 불이익과 부담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이나 창작 표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문화나 풍토가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공공 미술기관이라면 더 이상 이제 검열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이나 가이드를 내거나 아니면 정례적으로 검열 방지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예술 창작자들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손솔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검열 예방 교육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님, 검열 관련해서 교육 정례화·의무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지난주에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손솔 위원**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진행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정환 참고인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간 저희 의원실에서 문체부 산하기관 공무직 노동자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습니다. 공무직 중에 3분의 1 정도가 참여한 대규모 조사였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평균 근속기간이 6.3년이고 월평균 임금이 226만 8000원이고 근속 3년 이하 공무직과 근속 15년 공무직 간의 임금 차이가 고작 7만 6000원밖에 안 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김정환** 문체부 공무직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에서 전시 준비, 자료 정리, 시설 관리, 관람객 맞이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K-컬처를 지탱하는 숨은 일꾼들인데도 저희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을 일해도 한 달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몇 년을 일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고 제자리입니다. 저임금이 지속되니 생계 문제로 일터를 떠나고 남은 노동자들 또한 피로와 불안 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임금에 근속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저희는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기관에서 근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같은 직종이어도 일하는 기관에 따라서 누구는 근속이 인정되고 누구는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국립국악원에서 일하는 사서와 중앙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가 하는 일이 같은데도 근속 반영 여부가 달라서 해가 같

수록 급여 차이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봉제를 도입하거나 근속수당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K-컬처를 지탱하고 국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저희들도 공정하게 대우받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손솔 위원 지금 이 자리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관련해서 많이들 나와 계시는데 어디에든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문체부 소속 기관마다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공무직 직종도 다르지 않은데요. 저임금도 문제지만 기관마다 같은 직종이어도 조금씩 임금 차이가 있는 이 문제 해소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참고인 김정환 문체부 소속 열여덟 기관에는 총 20개의 공무직 직종이 존재합니다. 각 기관의 예산이 각각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수억 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해도 처우개선에 쓰지 못하고 어떤 기관은 예산이 부족해 임금도 못 올리고 각종 수당 예산 배정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예직, 사서직, 무대예술전문인, 전산원, 통번역원, 영양사 등 전문 직종들은 채용할 때 학위 또는 자격증 등 기준을 요구하지만 그런 전문 자격증에 대한 수당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원인은 문체부 내에 통일된 임금체계가 없고 소속기관별로 편성된 사업비에서 제각각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25년까지 문체부 소속기관별 임금체계를 만들고 28년 내에 문체부 공통 임금체계 마련과 전체 예산을 통합해 기관 간 예산 칸막이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자 이제서야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용역 연구를 발주하였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조속한 추진입니다. 조속한 추진 약속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솔 위원 감사합니다.

각 기관별로도 문체부에서도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누구시지요, 문체부? 지금 이 공무직 관계해서 담당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공무직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은 지금 현재 없고요. 저희가 각각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담당할 때……

○위원장 김교홍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지, 왜.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방금 들으신 대로 저희가 공무직군이 한 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를 통괄하는 거는 저희 기조실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교홍 기조실에다 얘기를 하셔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체육지도자들 갓 들어오나 20년 된 분들이나 봉급체계가 같잖아요? 그래서 근속수당을

주기로 문체부에서 결정했지요? 그거와 비슷하게 이것도 한번 연구해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는 데 동기부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20년 된 분이나 것 지금 1년도 안 된 분이나 똑같이 봉급체계가 되면 이게 일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호봉제도는 나중에 예산 문제가 많이 수반이 돼서 그건 2단계로 하시고 1단계라도, 근속수당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유흥준 관장님, 오전에 제가 박물관 유료화 검토 제안을 드렸었는데 부연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의 주요 박물관들 입장료 받는 데가 대부분이고 입장료도 우리 돈으로 치면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굉장히 고액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경복궁, 창덕궁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이 경복궁은 600만 명이 넘고 창덕궁 한 200만 명 됩니다. 민간 박물관 중에서도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는 박물관들이 있는데 입장료가 1만 원, 1만 6000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입장료가 검토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고액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학생들 교육 목적 이런 데 대해서는 감면해 주면되고 또 수시로 박물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주로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 외국의 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1회 입장권과 연간 입장권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 입장권이 5000원이면 연간 입장권은 1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은 크게 부담 없이 입장료가 있더라도 입출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현재 저희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중에서 전시 쪽, 미술관·박물관 유료화하는 문제는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따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여론조사에서부터 공청회까지 해서 가장 합리적인,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참고인 진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혜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님 나와 주시지요.

바쁜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체능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보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또 실기 중심의 평가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과 또 심리적 압박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예술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예술 교사가 지정한 특정 강사에게 입시 준비용 작품을 받지 않으면 실기성적 반영이나 입시 지도에서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는 외부 민간 학원까지 교사들이 지정해 주는 그런 카르텔을 형성하

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성혜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런 카르텔 구조 속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난 6월 달에 부산의 B 예고에서는 무용과 재학생 3명이 무용하는 어른이 제일 싫어요라는 절망적인 유서를 남기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같은 학교에서 불과 4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도 없었고 개선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박 위원님, 이렇게 지금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많은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공통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박성혜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무용계 입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무용과 입시는 100% 수시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 단위로 무용 실기를 기준으로 한 줄 세우기 입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그 줄에서 자꾸 밀려난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배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다음에 실기평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 눈 밖에 나면 나는 이 한 줄에서 굉장히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과 공포심에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승수 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관리 감독이, 정부 기관이나 지방의 관리 감독이 굉장히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참고인 박성혜 사실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교육부이지만 또 직접적으로는 예술 관련 풍토나 이런 거는 또 문체부가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몇몇 고등학교는 문체부 직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교육부가 좀 협의해 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는 아마 이게 굉장히 작은 사건이고 미세하고 자료를 보더라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정보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문체부는 굉장히 생태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부처가 같이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수 위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대처가 미온적이거나 굉장히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모처럼 나오셨는데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제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참고인 박성혜 예비예술인이라는 행정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하고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예비예술인들의 권익이라든지 권리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예비예술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한 미성년자 예비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방어권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이 된 이후로도 단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드렸듯이 교육부와 문체부가 어떻게 TF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도 사료됩니다.

○ 김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신은향 예술정책관님, 지금 나와 계신 참고인 말씀에 대해서 문체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굉장히 그냥 문체부의 대응도 좀 소극적이었어요. 지금 답변서를 받아 봐도 그렇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입시 관련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문제 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예고 선생님들하고 미팅도 예정을 하면서 대안 방안을 현실에 맞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승수 위원 문체부의 답변이 꼭 그 정도예요. 그냥 고민하겠다, 검토하겠다. 실질적으로 교육부하고 어떻게 보면 평庸 싸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겠다 또 향후에 어떻게 제도개선하겠다는 것을 종감 전까지는 꼭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알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 참고인 박성혜 예.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의 증인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신청은 안 했지만 지금 증인 및 참고인이 계실 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쳤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1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교홍 누구하고요? 일단 증인·참고인은 퇴장하고.

○ 조은희 위원 예.

○ 위원장 김교홍 누구한테 말씀하실 건데요?

○ 조은희 위원 예술정책관이요. 예술정책관이 김승수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너무……

○ 위원장 김교홍 예술정책관한테는 본인…… 앞으로 질의할 시간이 많아요. 그때 하세요.

○ 조은희 위원 예.

○ 위원장 김교홍 다 나가셨지요?

우리가 증인 채택과 참고인 채택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송달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늘 회의를 의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잠깐 했다가 전체회의를 해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김성희 관장님, 최근 53만 명이 관람한 론 뮤익 전시가 큰 화제를 일으켰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그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이 아니고요 보석 재단 프랑스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지원 아래 전시기획을 까르띠에 쪽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까르띠에 전시를 들여온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 역량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최근 3년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가 3개월 이상 해외 유수 미술관에 파견되거나 교류한 실적이 확인 결과 단 1건도 없었던데, 맞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대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중박에 해외 교류 있는지 보니까 그래도 중박은 네 번 정도 있더라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은 1건도 없으니, 외국 거 들여와 가지고 그거를 자화자찬하고 있으면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체성이 서겠습니까?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의 최근 전시를 보면 육여넣기 전시 같습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 중에 실험미술과 형상성 영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작품들이 엉겨 붙어 배치되어 가지고요, 작품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건데 저거를 그냥 다 한 곳에 몰아넣어 가지고, 저게 무슨 큐레이팅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국립박물관도 대관하는 거, 한국경제 신문하고 해서 하는 것도 비판했지만 그래도 중박은 사유의 방이라는 기획도 했습니다. 미술관도 좀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립현대대관미술관’이 되겠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제가 좀 다른 점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외부 기획사랑 한 전시는 아닙니다. 까르띠에 미술재단에서 론 뮤익 전시가 있었고 오랜 동안 저희 큐레이터가 가서 확인하고……

○조은희 위원 아니다. 흥이지 학예연구사잖아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외국 가서 아무……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의 시작이 들어 있지 않고……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전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렇게 육여넣기하고 안 되면 외국 거 가져와서 그냥 삼십몇만 명 됐다고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정병국 위원장님,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를 보면 법인카드를 엄청 잘못 쓰신 것 같은데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법인카드가 100여 개가 된 거는 법인카드를 기금별, 사업별로 별도로 계좌를 해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가짓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조은희 위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가짓수라는 겁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별도 계정을 만들어 갖고 쓰기 때문에. 또 15억 7600만 원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 관서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관을 운영하는 데 전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이 법인카드를 쓴 거고요. 실제 업무추진비는 토클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오늘 일단 설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예술의전당 이재석 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여기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술의전당을 두고요. 우리 서초구에 있는데 별명이 2개가 있습니다. ‘대관의 전당’, ‘적자의 전당’. 적자가 작년에도 당기순손실이 76억입니다. 이것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대관만 하는데요. 작년만 볼게요. 509억 원 중 114억이 대관 사업입니다. 실제로 오페라하우스 대관은 기획공연 세 배 이상, 음악당 경우 열 배, 한가람미술관은 대관전시가 기획전시보다 다섯 배나 많아요.

제가 중박도 국립현대미술관도, 지금 예술의전당이 제일 최악입니다. 예술의전당 이름이 무색합니다. 적자 내고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식음료 직영 매장이 2015년부터 위탁인데요, 왜 위탁 줍니까? 위탁 전환 전에 3년간 평균 수익이 56억인데 십오십육억은 위탁, 그걸로 그냥 위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어떡하실래요?

또 객석 점유율도요 음악당 59%, 오페라하우스 70% 이게 무슨 역량 있는 예술의전당입니까? 지금 보면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경우를 보면요 세종문화회관은 기획공연이 76% 객석 점유율, 국립극단이 85%입니다. 점유율이 20%나 떨어지는데 예술의 전당입니까, 대관의 전당입니까, 적자의 전당입니까?

제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아까 식음료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이양 정책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임대로 넘어가게 됐고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10년 정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는 직영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조만간 10년이 도래하고 임대가 끝나서 재임대가 안 되고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준비가 없이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위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 쪽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관 비중이 높고 기획 비중이 낮은데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최근 3년간은 기획 비중을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늘리다 보니까 저희가 예술 사업을 기획했을 때 항상 수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적자 구조가 돼서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적자는 좀 더 심화가 됐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재정적으로 과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고로 저희가 예술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전체 총예산은 200억 이상이 되지만 예술 사업은 한 10억 내외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관객친화형적인 기획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잘 못 하고 예술 사업 중심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타개책을 찾지 못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굉장히 변명이 구구하지요.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예, 죄송합니다.

○**조은희 위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십시오.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있어서 정병국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16개 법인 카드가 있다고 했고요. 작년에 ‘얼마 사용했습니까’라고 했을 때 한 해에 10억 76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작년에 임직원들 업무추진비 한 해에 2억 270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직원들 출장비를 얼마 썼습니까?’, 하나에 7억 3400만 원을 썼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금이 고갈돼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업추비 전혀 줄이지 않고 자린고비, 허리 졸라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뭔가 착오가 있다라고 저한테 정정을 말씀하시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이나 개선책 관련돼서 성과를 하나도 이루어 놓지도 않고 위원이 질의한 것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에 있어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임오경 위원** 제가 정확하게 설명 안 드린 게 있나요? 한 해라고 말씀드렸고 직원들 업추비라고 얘기했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법인카드가 100여 개가 넘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법인카드를 100여 개씩이나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쓰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 가지고 100여 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를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혀 허리 졸라매지 않고……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임오경 위원** 업무보고에서 기금이 고갈됐다, 타 상임위에서, 타에서 다 지금 기금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임오경 위원** 체육기금, 복권기금 다 해서 지금 문화예술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질의 시간입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서 허리는 졸라매지 않고 그거를 다 재조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은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임오경 간사님, 우리가 그런 전례를 놔두면 안 되니까 이따가 질의시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를 하세요.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된 상황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그러면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데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말한 것도 아니고 허리를 졸라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게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임오경 위원** 저는 허리를 졸라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 그것 하나 하나 제가 여기서 밝히자고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했으면 그렇게, 위원장이 졸라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잘못 말했다는 식으로 지금 저렇게 답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김교홍** 지금 우리 정병국 위원장님이 임오경……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어디에도 제가 잘못 말씀하셨다는 말씀 전혀 없고요.

○**위원장 김교홍** 잘못 말해서 그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다만 조은희 위원님께서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썼느냐 말씀을 하셔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조금 커뮤니케이션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부진하면 이따가 또 임오경 간사님 질의시간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조은희 위원님, 다 해결이 됐는데 뭘 또 얘기합니까?

○**조은희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조은희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굉장히……

○**위원장 김교홍** 위원장이 두 분이에요. 우리 정병국 위원장 있고 제가 있고, 앞에 얘

기를 하셔야지요.

○**조은희 위원** 아니, 우리 김교홍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잘해 주셔서 제가 평소에 감사하고 존경하는데요.

오늘 제가 질의한 문제는 법카를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이상한 데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본 위원의 5분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답변을 구한 건데 그것을 같은 동료 위원의 질의를 문제 삼아서 질의응답을 그냥 허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것을 문제, 아니 임오경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것을 문제 삼아서……

○**임오경 위원** 법카를 잘못 썼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본인의 질의시간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내가 정리했다고요, 조금 전에.

○**조은희 위원** 그런데 별써 3분 썼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정리를 했고 임오경……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발언 정정 잡아 주십시오.

저는 법카를 잘못 썼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앞으로, 지난번의 양문석 위원님 거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위원장님의 다시……

○**임오경 위원** 아니, 법카를 잘못 썼다고 한 적이 없다고요, 저는.

○**위원장 김교홍** 아니아니아니, 잠깐만, 잠깐만. 조은희 위원님하고 임오경 위원님, 잠깐 계세요.

이게 지금 뭔가 오해가 됐는데, 임오경 위원이 얘기한 것은 기금이 고갈될 정도인데 왜 법인카드가 이렇게 많고 많이 썼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병국 위원장이 임오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뜻도 아니고 본인의 답변을 한 거예요, 조은희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오경 위원이 부진한 게 있으면 이따 질의시간에 얘기하시지요.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김희섭 중앙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도서관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도서관이라는 건물과 그리고 서적이라는 책이나, 큰 게 이 두 축이 결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여러 보고도 받으시고 직접 눈으로 보시기도 했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도서관에 대한 얘기, 오늘 몇몇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서울시 도서관장이 실제 건물 안에 있는 내용을 서울광장으로 끌고 나오고, 청계천으로 나가서 근본적으로 도서관이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에게 성취감이라고 그럴까 효능감을 한번 극도로 높여 또 여러 가지 수상을 했던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단순히 자료와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마다 갖는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정연욱 위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연결을 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공 플

랫폼으로 변화한다는 이게 아마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한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 기적의도서관이라고 하는 것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정연욱 위원 실제 기적의도서관이…… 인구 3만 명입니다, 인제군만 하면. 그래도 개관 6개월 만에 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단순한 열람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문화 중심지로 거듭났고 가족 단위로 일부러 인제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지역 상권하고 연결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물론 이 지역 주민들만 가지는 않겠지만 외부에서도 여기에 직접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직접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공연 무대도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인제 여행의 코스로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도서관’ 하면 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재만화도서관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연재만화도서관이라 해서, 아마 6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전국 첫 공공 만화도서관입니다. 개관한 지 4개월 만에 방문객이 8만 40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만화책이 있지요. 허영만의 각시탈부터 마블 시리즈까지 3만여 권의 책도 갖추고 작가 강연, 창작실 운영, 만화 웹툰작가 지망생의 창작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국의 만화팬들은 아예 이곳을 성지순례하듯이 찾고요.

일본도 이런 유사, 외국 같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시가와현 현립 도서관에는 떠드는 도서관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정적을,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도서관 개념을 깐 것 아니겠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정연욱 위원 일부 공간은 아예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대목에서 우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민간 영역에서 도서관 무대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코엑스 같은 데서도 새로운 ‘별마당’인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정연욱 위원 그런 걸 해서 민간 도서관 형태로 해서 하는 게 상당히 그쪽 강남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개념이 과연 책만 갖다 놓는 그런 고정, 물론 그렇게만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의 모든 게 서적을 얼마 더 갖춰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 과연 이 도서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아마 이 도서관 문제는 결국은 지역과 어떻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고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도서관 패러다임만 가지고 과연 상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아마 8월 달에 부산에서 국제도서관대회가 열리는 건 잘 아시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래서 아마 150여 개국에서 5000여 명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올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학술 분과 토론도 잡혀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얘기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흐름을 한번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정연욱 위원 이제 과연 기존의 도서관 패러다임, 도서관 건물을 몇 개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으로 나갈 것이냐, 그런 것을 한번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정연욱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에 국제도서관대회를 준비하시는 기본적인 계획과 발전적인 대안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꼭 보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입장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김교홍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정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학교에서 문헌정보학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도서관학의 5법칙을 많이 들 이야기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도서관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이 변화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변화해 나가는 게 맞는 그런 조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많이 갖췄다 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추세에 아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많이 예를 들어 주신 도서관들은 주로 공공 도서관에서의 좋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일반 공공 도서관에서 사업을 함께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IFLA, WLIC라고 부르는데요. 그 행사가 부산에서 유치하는 큰 행사입니다.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거의 2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입니다. 마침 또 부산에서 개최하다 보니 부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만화 전문 도서관도 있고요 또 국회의 분관도 거기에 있기도 하고, 그런 도서관 인프라가 제법 잘돼 있는 도시가 또 부산이고.

또 이번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올해 열린 WLIC를 가 봤더니만 한국에서 행사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년에 부산에 오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이면서 시대의 변화에 빨리 반응하는, 변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될 거고 그게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도서관들하고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도서관대회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WLIC거든요.

그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협조 또 우리 문체부에서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도서관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행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정연욱 위원님 마치신 거지요?

○정연욱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정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병 이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경기도 고양시 이기현입니다.

PPT 먼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유홍준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국중박 유료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예.

○이기현 위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현황인데 ‘국립’ 자 붙은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국가예산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립도 대부분 무료고 현대미술관까지 다 무료지요. 유료화하는 곳은 국가 산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박물관의 경우에는 일부 유료이고요. 민간 리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유료입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실래요.

외국의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은 무료인데 재단에서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오마라든지 메트라든지 이런 곳들은 다 유료입니다. 굉장히 고가지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립, 민간 대부분 다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유럽이 미술관·박물관의 나라들이 많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립이라도 유료입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 자 붙은 곳들은 다 무료입니다. 러시아도 국립 유료고요.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국립이지만 유료입니다. 네덜란드도 국립 유료고요. 그리고 독일도 국립은 유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아시아의 경우에 보면 도쿄 국립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유료로 받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립들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들은 다 무료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지요.

국가기관의 운영 구조에 따라서 입장료 책정 정책들이 대부분 달라지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국가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가별로 좀 세분화해 봤고요. 이것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미국·영국같이 국가예산의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독일·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과 지자체 자체수입을 병행하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스페인의 경우에는 국립이라 할지라도 티켓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기 때문에 특정 날, 특정 시간대·나이대를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병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기관의 운영 철학, 예산 구조에 따라서 입장료 정책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입장료를 받을지 말지 이렇게 딱 갈라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해외 사례와 같이 유연한 정책이 좀 고려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국중박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연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듯이 해외 관광객 비중은 지금 굉장히 작습니다. 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문화재를 훼손했던 그런 에피소드들도 아주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 입장료는 받되 특정 연령대라든지 특정 직업군에게는 무료화하거나 아니면 주에 하루 내지는 한 달에 한 주 정도를 무료로 개방해서 유료 정책하고 무료 정책을 혼합해서 쓰는 것도 지금 국중박이 일단 한 단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의 현실에서 도입할 수 있는 유료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중박이 지금 인원이 많아서 인프라는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공간도 협소해져 버린 거지요. 인원이 워낙 오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협소해졌는데 쾌적한 관람 환경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국중박 가서 사유의 방 보면서 그 넓은 방에 단 두 점의 불상을 보면서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전시의 힘이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이런 프리미엄 전시, 기획 전시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국가예산의 지원이 작기 때문에 국중박이 입장료 수입이 만약에 보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더욱더 많은 재정적 뒷받침하에서 콜렉션의 문제 그다음에 고품질의 전시회 문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저희도 유료화하는 시점과 유료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저희도 그대로 체크를 했고 또 유료화했을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것이 1년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서부터 노인 또 여러 사람들을 무료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는 중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유료화라고 하는 것이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적게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관람객이 많아야 좋은 것은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무료가 생활화됨으로써 스포일(spoil)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중박이 무료이기 때문에 다른 박물관에 5000원 내고 들어가는 것이 습관화가 안 돼 가지고 박물관은 저렇게 엄청난 게 무료인데 이 조그마한 전시회에서 1만 원을 받냐, 5000원을 받냐 하는 그런 동반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박물관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료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도 팔로우 업을 할 자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올해 600만 넘어설 수 있다라는 예상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질적 성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으로 세계 5대 박물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외 유명 박물관들하고 어깨를 견주었을 때 절대 콜렉션이나 그리고 전시회의 질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국중박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이제는관장님과 그리고 국중박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아울러서 이 숫자를 어떻게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예술의전당 이재석 본부장님, 올해만 공연장 피트 추락 사고 3건이나 발생했는데 그중의 1건이 예술의전당에서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저희 쪽에서는 피트에서 떨어진 사고는 없었습니다.

○ **진종오 위원** 추락 사고가 3건이나 발생, 예술의전당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요?

○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예.

○ **진종오 위원** 최근 5년간 발생한 예술의전당에서만 발생한 공연장 사고를 보니까 21년도부터 올해까지 24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고요?

○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그게 오케스트라 피트 쪽이 아니라 무대 장치를 해놓고 나서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 **진종오 위원** 그 사고도 있었고 추락 사고도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1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기계 점검 중 추락 사고가 났었고 그리고 스태프 1명이 또 리허설 중 추락하고 또 오케스트라 피트에 떨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추락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소품이 떨어져서 출연자가 다쳤었고 스피커가 낙하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안전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 8월에는 세종 예술의전당 무용수 2명이 피트가 내려가 있는 것도 모르고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도 다 알고 계시지요?

○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예, 세종하고 예술의전당 서울하고 좀 다른……

○ **진종오 위원** 다른 것은 맞는데 사건·사고가 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지를 하시냐 하는 것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는 또 경남 밀양에서도 안무가가 리허설 도중에 추락을 했고 그리고 5월 달에도 예술의전당에서 스태프가 추락해서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까?

○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그런 사고는 없었고요. 아까 스피커 떨어진 부분은 예술의전당이 맞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슈가 하나 된 게 있는데 2018년도에 성악가가 무

대에서 6m 아래로 떨어져서 참변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사건·사고 수치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몇 년째 계속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은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왜 그냥 놔두고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이게 저희 극장에서 발생한 건이 아닌 경우들이 좀 많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진종오 위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예, 이게 아무래도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좀 부족, 무대의 전문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진종오 위원**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안전 전담하는 사람 누가, 누가 안전을 전담하고 있지요, 공연장에서 대부분?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저희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무대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진종오 위원** 그리고 대부분 공연장 같은 데 보면 무대감독이 다 안전 담당하고 있지요?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예,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다 같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연출도 맡아야 되고 리허설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전 점검 또한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의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인력 부족인 거잖아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충당을 해야 되고 보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왜 안 나서서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용단하고 공연단체 보험 가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현장에서의 공연에 대한 보험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강제 사항은 아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보면 보험조차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사고가 나면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다 전액 부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평균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보험 가입도 안 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다 내야 된다면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그 부분은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아무래도 예술의전당이 먼저 앞장서서 공연장 안전관리 책임져 주시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저는 문체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 방법을 좀 개선시켜 주길 바라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진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19세 청년에게 연 15만 원의 문화예술료 관람료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사업을 오전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주력으로 지금 위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시작되고 올해 대상 인원이 16만 명, 지원 규모가 총 240억 원 규모 맞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 해당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고 기획한 이유가 뭐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사실 저희가 기획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됐고 그 취지는 순수예술에,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고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 주자, 그러니까 순수예술을 좀 고양시키자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방법들을 강구했지만 간담회를 하면서 직접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배현진 위원** 일단 취지는 순수예술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우리 성장하는,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좀 더 확대해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것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사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좀 어긋나지 않도록 나름의 조치를 해서 이른바 중고 재판매라든가—티켓을요—리셀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것을 봤는데요. 인터파크, YES24 이런 곳을 통해서 다시 재판매할 수 없도록 협약을 맺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그 이외 혹시 SNS 계정이나 이런 것도 혹시 모니터링을 해 보셨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거기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배현진 위원** 문예위가 보니까 2024년도에 7000만 원, 25년도에 8000만 원, 저는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이랑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게 정부가 순수한 목적에서 순수예술 진흥과 우리 청년들의 문화예술 양식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외로 옛날 트위터지요, ‘X’라고 하는 SNS나 다른 여타 SNS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이게 부정거래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예위가 무슨 경찰처럼 다 잡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저희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소위 현금깡이라고 하지요,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요. 아주 손쉽게 15만 원짜리 예술패스를 12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고 아이디를 양도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대학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저도 저 아이디를 가지고 20세 청년들이 봐야 될 예술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약간 구멍이 있더라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다른 간단한 티켓

팅을 할 때도 통신사 본인 인증이나 아니면 SNS 플랫폼을 통한 QR 계정을 통해서 티켓을 수령할 때까지 한 번 또는 두 번 본인인지 아닌지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있고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 부분을 종감 때까지 확실한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신은향 예술정책관님, 저 뒤에 있으신데요. 제가 앞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잠깐 질의를 첨가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지난 며칠간 우리 무용계 관련한 질의를 쭉 해 주셨는데요. 저도 무용계가 잘됐으면 바라고 또 굉장히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디서 이렇게 잡음이 지속되나라고 궁금했는데 오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속에는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차관급의 자리 혹은 그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여야 어떤 정부를 통해서든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 만들지 말자고 서로 대단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관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아까 예술경영지원센터 본부장님은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약간 동떨어져 있으신 것 같고요. 우리 문화체육부 예술정책관께서 이 일을 왜 그런 경로로 특정 사람들이 계속 그 공모사업에 집중되고 자리를 차지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아무래도 예술계에, 특히 무용 분야가 시장이 형성돼 있지 못하고 전문성이……

○**배현진 위원** 맞습니다. 무용 분야는 굉장히 지금 열악한 분야입니다. 국립무용단 강수진 단장님 와 계시지만 지금 사실 받는 예산 지원도 우리 무용계 빌레리나들이나 무용수들이 하는 그 세계적인 활약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인데 이것을 조정하고 건강하게 더 잘되도록 하는 게 예술정책관님의 역할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저는 지원센터 경영본부장님이 아까 김재원 위원께 보고서 어떻게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술정책과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왜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이 빚어졌고 그 열악한 무용계에서 무용을 하는, 안무를 짜고 무대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거꾸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지 제가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그 점 정확하게 다 조사를 하셔서 종감 전까지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까 김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위원장대리 박정하**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전 데요.

○ 위원장대리 박정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30초만 자료……

○ 위원장대리 박정하 자료 요청하신다고요?

○ 민형배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게 30초만 주십시오.

4시까지 아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제출했습니다.

○ 민형배 위원 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제출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아직 저희 자리에 안 뿐려셨는데……

그리고 번역원의 전수용 원장님,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안 보이시지요?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저쪽으로요?

○ 민형배 위원 예, 저쪽으로요. 그쪽에는 제가 안 보여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정하 그건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제출하셨다 그러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제출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서 제출하신 거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민형배 위원 얼른 주세요. 배부해 주세요, 그걸 얼른.

위원장님, 얼른 와서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하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시는 거지요?

○ 민형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수용 원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구글의 보이스 트랜슬레이터라고 들어 보셨지요?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보이스 트랜슬레이터요?

○ 민형배 위원 예.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못 들어 봤는데요.

○ 민형배 위원 진짜요?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돌릴 테니까 한번 봐 보세요. 안 돌아가네. ‘통역사 이제 짐 싸야 하나. 구글 AI, 내 목소리로 통역한다’ 저런 게 보이스 트랜슬레이터라고 나왔어요. 겁나게 이제 아주 번역을 잘한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백오십 분 영문과 교수님들한테, 조금 전에 원문 시 하나 보여 주세요. 저게 조선시대 장유 선생 시거든요.

다음 장 주실래요?

저거를 백오십 분한테 ‘번역 좀 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지금 드린 대로 A하고 B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다 잘됐습니까?’ 하고 여쭤더니 12.5%는 A, 75%는 B라고 했습니다. 영문과 교수님들입니다.

얼른 보시기에, 원장님도 영문학 하셨잖아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번역이?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그렇게 금방 판단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형배 위원** 저처럼 영문학 전공이 아니어도 그냥 감은 오던 데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

○**민형배 위원**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A하고 B 중에 번역가가 한 게 어느 것인 것 같습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A인가 보지요?

○**민형배 위원** 그럼 B가 잘됐습니까, A가 더 잘됐습니까, 번역이?

영문과 교수님들은 B가 75%라고 했는데 번역가가 한 게 A라고 그러셨잖아요. B가 더 잘됐다고, 영문과 교수님들 백오십 분한테 여쭤더니 75%가 B가 더 잘됐다고 했고 그 이유가 저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쭉 나오는데 제가 그 이유를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더 잘된 번역이 어느 겁니까?’ 했더니 75%가 B라고 했는데, 번역가가 한 게 A고 GPT가 한 게 B입니다. 원장님 보시기에도 그러신가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하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형배 위원** 그러시지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민형배 위원** 어떤 교수님은 그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만약 A나 B 중 하나가 AI 번역이라면 그리고 대조되는 글이 인간 번역이라면 둘 중 무엇이 더 좋은 번역일…… 좋은 번역인지 굳이 따지기 어려웠을 정도로 그 차이가 월등하게 나지는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차이가 아주 분명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AI 번역이 인간 번역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진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번역한 것보다 AI가 번역한 게 훨씬 저 시의 그걸 살렸다고, 영문과 교수님들도 그러시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번역가 필요 없습니까, 앞으로? 번역원도 필요 없겠는데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않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제가 사실 AI 번역을 사용을 해 봤습니다, 하도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떤 구절을 번역시켰는데 ‘구멍을 통해서 햇빛이 커튼 같은 데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그런 거를 어떤 분이 표현하셨는데 AI는 그냥 그것을 ‘shown through the hole’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번역을 하니까……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분위기와 뉘앙스를 전혀 살리지 않고 뜻을 위주로 번역을……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AI는 번역가가 했고 B는…… 아니, B가 AI가 한 건데 B가

더 좋다고 다 그러시잖아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것이 조금 더 직접 직감적인 어필이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약간 제가 느낄 때에는……

○**민형배 위원** 시적이지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유식해 보이려는 그런 투로 번역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민형배 위원** 원장님은 그러신데 다른 영문과 교수님들의 75%가, 그러니까 4분의 3이 B가 시로서 번역이 잘돼 있답니다.

자, 그러면 번역가가 필요 없느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번역원의 과제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AI 번역 시대에?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그러니까 AI 번역이 충분히 진화를 한다면 아마도 AI가 한 것을 최종적으로 감수하는 역할을하게 될 것도 같고요.

○**민형배 위원** 감수가 될까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인간 번역이 더 부적절한데……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그런데 제가 실제로 번역을 시켜 봤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많이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역원의 첫 번째 과제는 번역원의 윤리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한국문학번역원에서 AI 번역 교육과정을 구축하겠다, 운영하겠다 그러셨잖아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민형배 위원** 그래서 이 활용 윤리를 교육하시려면, AI 활용 윤리를 교육하시려면 또 이런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혹시 이런 연구 용역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연구 용역까지는 아닌데 지금 교육본부장님이 법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을 구해 가지고……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봤더니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일을 하시기에 적합한 예산구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잘된 번역가의 역할을 꼽았잖아요. 그랬었지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AI 번역 시대에 번역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문학번역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좀 담아서 종감 전까지 주시면 그것을 종감 때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예산구조를 살펴볼 때도, 예산 반영할 때도 고민해 볼 테니까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산을 조금 더 늘려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민형배 위원** 아니,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유를 제출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정병국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 기금 고갈되고 있고 계속해서 타 기금에서 전입받아서 운용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운용으로 기금이 충족되지는 않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임오경 위원 전략이라도 하셔야 되겠지요, 대안·대책을 마련하시든지?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저 나름대로도……

○임오경 위원 노력하셨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신 거 없지요? 기재부한테 맡겨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 하셨지요? 아침에 답변 들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한테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오전에도 마지막에 답변할 기회 드렸고요.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을 들었는데 답은 안 주시고 기재부에다 맡겨서 국회의원 5선 했지만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어떠한 것도 하나도 해결 못 하시면 어느 위원장이 오더라도,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5선 국회의원에 전 문체부장관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타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재부 또한 타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 간의 이견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서 문체부 공무원들은 매번 타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 때문에 매년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듣고 제가 질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 먹고 위원장님한테 한말씀드린 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감사한데요……

○임오경 위원 그래서 허리를 졸라 매 달라라고 말씀했고.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또 어떤 위원장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대안·대책을, 계획해 놓은 것을 잘 만들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임오경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제가 국회의원 5선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관까지 하면서 결론은, 그 당시에 기재부 마인드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임오경 위원 아침에 그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지금 현재는 아웃풋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이 산업별로 보면 여섯 번째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오경 위원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 대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판뮤직을 제작한 문전사, 이거 문체부가 설립한 거 맞지요? 알고 계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죄송합니다. 정확히 잘……

○**임오경 위원** 잘 모르고 있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임오경 위원** 방판뮤직 스태프들·출연자들,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지급 못 받고 있는데 이거 모르고 계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난 KBS에서 방영된 ‘방판뮤직 : 어디든 가요’는 161명의 스태프, 출연진에게 출연료와 임금을 미지급해서 17억 5000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방송한 KBS는 방영 수익을 챙기고 프로그램을 웨이브에 공급해 2차적인 수익을 얻었음에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즌 2를 제작하면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추가 촬영을 유도했지만 추가 촬영분은 편성조차 받지 못했고 추가 촬영분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향 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이거 알고 있지요, 월급 밀린 거랑?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정용욱 대표님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신문고 사건을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재단에서는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실 것 같고 임금체불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지난번에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제도 개선하는, 특히 그때 임오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임금채권 대위에 대한 부분 계속 검토를, 제도화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정용욱 대표님, 이거 숙지하셔서 저희 의원실에게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임금체불은 엄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문체부는 방판뮤직 제작사와 문전사 그리고 KBS 관계자에 대해 엄벌하도록 하고 문전사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종감 전까지 대표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앉으셔도 좋습니다.

국립극단, 발레단, 오페라단, 합창단 그리고 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싱포니오케스트라 기관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술단체들의 사업 추진 실적을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역순회공연들을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좌석 점유율이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작년

의 경우 지역공연 객석 점유율이 서울예술단은 69.1%가 나왔고 국립극단은 68.5%, 국립합창단은 66.98%, 현대무용단은 55.78%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국립발레단은 86.3%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강릉, 부산, 구미, 천안 등등 90%가 넘습니다, 국립발레단 같은 경우는.

강수진 단장님, 발레에 대한 관심도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겁니까?

○**국립발레단장겸예술감독 강수진** 관심도 많으시고요. 지금 발레를 정말 많은 관객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항상 관객……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의 노력이 없었는데 그냥 국민이 사랑해 줬습니까, 관객들이? 아니지요, 그건?

○**국립발레단장겸예술감독 강수진** 아니요, 노력하지요, 당연히.

○**임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석 점유율을 떠나 국립예술단체의 지역공연은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객석도 꽉꽉 차서 문화를 향유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기를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함께 객석을 가득 채울 방안을 좀 고민들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더욱 좋은 공연들을 하실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책보다는 오히려 잘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유율이 높아졌는지를 분석하셔서 문체부하고 더 좋은 공연 만들고 객석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립발레단장겸예술감독 강수진** 감사합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감사합니다.

유홍준 관장님, 오전에 하던 거 마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못 한 게 2004년경 중국이 광개토대왕비까지 포함해서 우리 유적을 자기네 유적이라고 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에 손톱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금년 초에 용두산 발해 유적에서 나온 유물들을 또 자기네 거라고 발표를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중박에서는 고조선 관련한 전시뿐만 아니라 전시회 공간, 준비 사항, 인식 등등이, 너무 소홀히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여쭈었던 거고. 제가 관장님께 말씀 여쭙는 거는 이렇게 중국이 노골적으로 동북공정에 대해서 손을 뻗치고 자기네가 노골화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자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아주 힘든 문제고 이거는 우리 동북아재단을 비롯해서 또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주관 부서가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결국 유물로서 증명하는

것은 국중박뿐이 없는데, 그들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콘셉트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맞대응으로 해 가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우리 역사가 갖고 있는 정통성을,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폐쇄적 민족주의, 나아가서는 어거지에 해당한다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용두산 출토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저희 대응하는 것이, 우리 국중박이 나서서 하는 일은 업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박정하 위원** 알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저희들은 상설 전시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조선 이래로 한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전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박정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쭙는 거는 오전에 여쭙 것처럼 관장님이 현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에 제법 많은 영향을 미치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래 주기를 기대하면서 여쭤는데 답이 제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좀 유감스럽고.

이걸 왜 정리하려고 하냐면 관장님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좀 묵직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거였지요.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거 광화문시대 위원장 하셨으니까, 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해야 한다고?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박정하 위원** 당시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뭔 뜻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요. ‘청와대 관저, 특히 위치가 풍수상 불길하다’.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물으니까 ‘수많은 풍수상의 근거가 있다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고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다고 그러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모순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아까 말씀의 무게, 관장님이 갖고 계시는 위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제가 풍수상의 문제를 얘기한 건 청와대 자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잠자는 관저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관저 그 자리는 본래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음습한 자리가 돼 가지고 이게 풍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가들의 입장에서는 생활 공간의 위치로서는 부적격하다는 것이 있어서 저는 권하기를 지금도 집무실은 청와대로 가도 관저에 대해서는 삼청동 뒤에 있는 안가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고.

○**박정하 위원** 그렇게 건의하셨어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받아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거론은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느 라인선에 건의하셨어요? 확인해 줄 수 없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여러 라인이 있는 중의 하나고.

또 하나 의견을 얘기하면 청와대 뒤 북악산은 다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개방을 하려고 그러면 관저 있는 데에서부터 천하제일복지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잠자리를 쓰는 관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 주고 그 자리는 국민들에게 내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주신 말씀은 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최근에 국중박이 인기가 많으면서 관람객이 한 400% 이상 급증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최근 몇 년간 인원이 전혀 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분이 그 전체 총의 반 이상을 혼자 담당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우연히 두 군데, 프랑스의 두 군데지요. 루브르하고 자연사에서 도난사건 나요. 그런데 국중박 안에 있는 보안요원들 수가 또 오히려 줄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노동량이,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도 이렇게 케파가 커졌으면 그거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은 동반해야 된다고 하고 기재부나 이쪽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 협력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병국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릴 때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드렸던 것은 임오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5선 국회의원도 했고 장관을 하면서 또 5선 동안에 3선 동안을 문방위만 제가 있으면서 끊임없이 문예진흥기금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도 냈었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재위에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위로 2년 동안 옮겨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기재위원들은 또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설득하는 데 실패를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의 논리는 모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아웃풋이 안 나는데 왜 돈을 쓰려고 합니까라고 하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이 모든 산업의 아이템별로 보면 여섯 번째 수출을 하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133억 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어떤 다른 산업보다도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런 부분이 쑥 드러갔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수시장 300조 문화콘텐츠 시장을 만드시겠다고 공언을 하셨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위원님들께 조금만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실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 정치 경험, 행정 경험 이런 걸 통틀어서 봤을 때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정부 예산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미국

이나 영국보다 지금 현재 한국이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계에 지원하는 절대 액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지원이, 98%가 정부 예산에만 목을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60%가 자체 수입이고 30%가 사회적 후원입니다. 정부 예산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레퍼토리화하는 단계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자체 수입도 늘리고 사회적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걸 조금만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K-컬처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정병국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김장호 대표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뮤지컬의 본고장 미국에서 토니 6관왕을 수상했어요. 맞지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예술이 한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K-컬처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지요. 문화예술 지원을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국가적 투자로 인식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진흥기금을 그냥 계속 보조금 쪽으로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 지금 대부분의 지원 형태가 정부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경영지원센터는 컨설팅도 하고 투자 유치도 연계해 주지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거기서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보조금 쪽으로만 의존하니까 많은 액수가 투여되더라도 실효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곳감 빼 먹듯이 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투자로 디지털 IT 강국이 됐고 네이버 같은 혁신 기업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술 기업에 보증과 융자를 해 주는 국가 정책,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술산업, 특히 예술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조금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에 덧붙여 가지고 산업 내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융자라든지 보증 형태의 지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실은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펀드의 지원까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저는 경영지원센터가 사실 이런 거를 좀 추진해 줬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하고 얘기해서 법도 좀 개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법을 좀 한번 개정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실패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렇지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또 조건 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야, 조건 없이.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안 됐어요.

우란문화재단 아시지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최태원 회장의 모친께서 하시는 거. 거기서 그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2014년도부터 설립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증이나 융자나 투자 유치,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더 지금 시급하거든요. 지금 영화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독립영화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안을 줘서 한다면 이거는 한번, 이런 것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홍준 관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열세 곳의 분관이 있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예, 지방 박물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경주에는 신라 역사를 담은 경주박물관, 전주에는 조선의 역사를 담은 전주박물관 또 부여에는 백제박물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려의 역사박물관이 없는 것 같아요, 고려. 그러니까 몽골에 맞서서 39년 동안 수도였던 강화의 고려 역사박물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거기에는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선원사지라든가 고려 궁지 그다음에 고려 왕릉사기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려 유물이 107점이고 그 중에 국보급 문화재만 48개, 48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 입장은 어때요? 고려 박물관을 만들어서 남북한이 같이 공유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북한은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한국 역사학회 중에서 중세사학회가 고려시대의 역사 연구하는 학회인데 이 학회가 오래전에 인천시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남한의 영토 안에서 고려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는 곳은 강화도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화도의 어떤 식의 형태든 박물관을 해서 연구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했고 또 국가유산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한다면 고구려만 하더라도 중원에 중원고구려비가 있어 가지고 그 근거 하나를 해 가지고 전시관을 만들기도 하는데 고려만 인천 강화도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학계에서도 확실하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서 이런 것은 지자체하고 또 학계하고 다 같이 연구해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만, 자료요구……

오늘 국감 추가 증인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관련해서 박진영 위원장도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대중문화교류……

○ 위원장 김교홍 추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 김승수 위원 예, 참고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주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별써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 출범 관련해 가지고 근거 법령 제정 과정이라든지 또 예산 이용 과정 또…… 출범식이 10월 1일에 있었습니다. 출범식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서류들, 이런 부분들은 저도 공무원 시절에 다 해 봤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관련 공문서는 해당 과에 다 보관되어 있는 서류들입니다.

복사해서 제출하는 데 1시간도 안 걸릴 서류들이 지금 일주일째 안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정감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 내일까지 요구했던 서류가, 딱 일주일입니다. 이게 다 제출될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교홍 담당 국장님은 누구시지요? 신은향 국장님인가요, 이게? 맞지요?

배석 안 했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관련해서 콘텐츠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앉으세요. 그걸 전달을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한다 그랬으니까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직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 김승수 위원 출범식까지 했습니다. 출범식까지 했고 관련……

○ 위원장 김교홍 아니아니, 출범하고 위원회, 세부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 김승수 위원 위원회 구성 상황이 아니고요.

○ 위원장 김교홍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거든. 위원회는 이미 출범했고 세부 분과위원회, 그러니까 그게 됐으면 그 자료를 꼭 내일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만 남았어요.

오늘은 3분씩 추가질의만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전에 끝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국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 쉬셔야 되니까 그러면 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5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

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유홍준 관장님, 송광사에서 1970년도에 도난당한 오불도가 지금 2점 중의 1점은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이 이것 도난품이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우리 측에 조건 없이 돌려 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점에 대해서 송광사가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장기대여 형태로 송광사에 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래 한 쌍이었던 오불도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보물지정 심의조차 보류된 상태인데 이것을 송광사에 소유권을 줘서 해결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지금 저희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임대일 거기 때문에 해서……

○조은희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소유권을 넘겨야지 보물 심의가 되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그게 소유권을 거기로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의……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조건 조건 따지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미국은 포틀랜드 박물관이 조건 없이 줬는데 같은 대한민국에서 보물 지정하도록 하면, 이게 도난당한 거면 보물 지정이 안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같이 경계를 세워 가지고 안 돌려줘 가지고 보물 지정이 안 됩니까?

유산청장 하셨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그런데……

○조은희 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예.

○조은희 위원 그리고 그것을 공무원들처럼 조건 다시면 안 됩니다.

황금숙 국립장애인도서관장님 계십니까?

잠깐 스톱 좀 해 주세요.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장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 맞지요?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 자료 이용률이 0.5%에 불과합니다.

화면을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현황을 보면 발달장애인의 자료는 전체의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5년간 제작한 발달장애인 자료 제작 건수는 전체의 0.7이 아니고요 0.07입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올해 새로 80종의 작품을 총 4만 부 발달장애 대체자료로 제작하겠다고 하셨지요?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 **조은희 위원**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작 건수는 아직 10월인데 0이에요.

준비 잘 하고 계시지요?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그럼이요. 보도자료도 이미 준비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은희 위원** 나가는 걸로 알고…… 그러면 언제까지 다 하실 거예요?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12월 말까지 본 사업은, 대체자료 제작 사업은 3월쯤에 발주를 하고요 납품을 11월 말쯤에 받습니다. 그리고……

○ **조은희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 **조은희 위원**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추가질의 원래 없어요.

○ **조은희 위원** 원래 없습니까?

제가 문제점,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압니다.

발달장애인 대체자료는 저작권법상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지요?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맞습니다.

○ **조은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요. 개정이 되기 전에도 개정이 된 것처럼 생각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저희들도 지금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읽기 쉬운 책을 전자책으로 구현을 해서 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한 AI를 활용한 공공간행물 같은 경우를 저희가 또 제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은희 위원**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조금 늦어서 죄송……

○ **조은희 위원** 지적을 받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조은희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알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정용석 대표,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오늘 하루 종일 김건희의 어좌 착석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에 정용석 사장이 계속해서 위증에 위증에 위증을 계속 거듭하면서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죄송합니다. 제가……

○ **양문석 위원** 두 번째, 월대 복원 행사 사전답사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리고 아까 아랍에미리트 국왕 방문대…… 월대 잤나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월대는 앞에 문을 열고 보셨습니다.

○양문석 위원 보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협생문 들어오셔 가지고 흥례문 앞에서 월대를 보셨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믿을 수 없는 게 아랍에미리트 국왕에 대한 사전답사는 사실상 10월 달에 한 달도 더 남은 시간에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안 왔어요. 경회루와 관련해 가지고 외교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갖다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의 변호인은 아프리카 정상회담, 9개월 뒤에 있었던 아프리카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전답사 갔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건 잘못 발표한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김건희의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잘못한……

○양문석 위원 그리고 본인은 아랍에미리트 국왕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유산청은 월대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월대도 안 갔어요.

정확하게 상황실 관리일지가 방금 들어왔는데 13시 35분부터 15시 26분 VIP 협생문 입장, 근정전·경회루·홍복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VIP…… 김건희가 VIP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김건희가 VIP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VIP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당시 유산청의 상황실 관리일지에 VIP, 협생문으로 입장한 거예요. 그런데 월대는 언제 어떻게 봐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협생문으로……

○양문석 위원 잠깐.

그래서 월대 때문에 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월대는 가지도 않았고 현장 체크도 안 했고 보수 점검하는 모습도 안 봤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국왕 한 달 뒤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정상회담은 9개월 뒤고. 그러면 김건희가 왜 갔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첫 번째 질문이 유산청도 그다음에 정 사장도 그다음에 김건희 변호사도 다 거짓말한 꼴이 됐습니다. 다 거짓말한 꼴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전수용 문학번역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요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이름 네이밍 자체가 갖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학 번역에 맞추시겠지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정연욱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여러 제한이 있고 해서 그동안 번역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우수한 문학 번역 인재를 키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출판—기본이겠지요—그다음에 영화·드라마 이런 분야에서 최근 5년 동안 353건의 성과를 보여 줬다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 수료생들이 최근 5년간 영화와 드라마·웹툰계에서 총 206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넷플릭스 그다음 부산영상위원회 그리고 들꽃영화제 등과 협업을 해서 나름 상당히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료생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출판을 통한 번역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으시겠지만 아마 번역원 자체의 명성을 고려해서라도 제대로 된 번역, 이게 각 영역의 많은 분야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수료생들이겠지만 별개로 이런 번역 사업에 참여하신 적은 따로 없지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저는 한영 번역 그러니까 외국어로 하는 번역은 안 했고 저는 영한 번역만 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영한, 그것 베이스로?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정연욱 위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번역원에 이런 수료생들과 연계 협업을 제외하고는 기업이나 다른 공모나 기획 사업을 추진한 적은 따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K-컬처 300조, 이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싶어 하는 국정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K-콘텐츠가 결국 영상·웹툰·게임 모든 영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이 분야를 모두 커버를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그렇지요.

○정연욱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학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노벨상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가능성에서 조금 영화나 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과연 이 번역원 자체의 기능을 더 확대, 외연을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정연욱 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저희가 문학 콘텐츠 과목들을 개설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전에는 문학만 가르쳤지만 문학과 문학 콘텐츠를 통합한 코스 정규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문화의 영역이라는 게 출판만 담당할 수 없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외연을 넓혀야 된다는 것은 원장님도 공감하시고.

과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그렇지요.

○정연욱 위원 그리고 좀 나름대로 공인된 기관의 번역이나 통역이나 이런 부분을 원하는 데가 많은데 과연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

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데도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요청이 많고, 그런 데서 수요를 찾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웹툰 등 각 콘텐츠 분야별로 번역원이 주도하는 산업형 번역 협업 체계나 정례 프로그램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약간 더 확대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많이 수요가 요구되는 전문 번역 인재 지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그러니까 저희가 수료생들한테 기회를 주고는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나 무슨 출판사 에이전시 이런 데 연계해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사회에 진출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는 저희가 번역지원금은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직접 지불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문학진흥법의 규제를 받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진흥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의 번역을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준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조금 정리해야 되지 않나, 저희 기관이 그런 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연욱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결국 K-콘텐츠의 확장이라는 큰 대의를 인정하신다면 기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정용석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김건희, 최웅천, 이배용, 의전비서관실 1인, 문체비서관실 1인, 비서관을 얘기하겠지요? 본인 제외하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부속실 3~4인, 경호처 5인, 유산청에서 4~5인 그리고 본인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대통령부속실의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기억 안 나시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방이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이기현 위원 일반적으로 대통령부속실은 대통령의 수발을 드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전비서관실이 있고 경호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부속실은 10인 이내로 만들어져 있는데, 행정관들이.

평일 날 대통령도 아닌 김건희라는 대통령의 부인이 사적으로 문화재를 찾아갔는데, 문화 현장을 찾아갔는데 부속실 직원 3~4명 데려갔다면 대통령이 김건희입니까, 윤석열입니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당시 김건희 여사를 따르는 같이 수행하는 수행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현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어좌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본인이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올라갔냐, 측면으로 올라갔냐 얘기하니까 본인이 기록한 것 보면 ‘이배용 위원장의 권유로 김건희 여사가 앉은 것으로 기억되며 당시 측면을 이용하여 어좌에 올랐고 과정에서 경호실 직원이 보좌한 것으로 기억한다’. 맞습니다. 제가 네 계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다섯 계단이었어요.

측면으로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어좌가 있고 뒤에 일월오봉도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누가 올라갔느냐면 왕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월오봉도는 혹시 열었던가요? 올라갈 때. 기억해 보세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이기현 위원** 일월오봉도 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이기현 위원** 기억 정확하게 해 보세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날 이배용 위원장이 한번…… 아침에 제가 너무 당황돼 가지고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위원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 **이기현 위원** 아니요, 이제 인정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서류로도.

이배용 위원장의 권유로 경호실 직원의 부축을 받아서 다섯 계단이라고 하더라도 한 계단당 30cm 이상이 될 겁니다, 어려운 자리였기 때문에 겨우 부축해서 올라갔을 텐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월오봉도를 옆으로 밀고 올라갔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이기현 위원** 왕이 올라가는 길로 김건희가 올라간 겁니다. 이배용 위원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은 앞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문화재위원을 역임한 이강근 시립대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일월오봉도의 뒤에 보면 경첩이 달렸고 문이 열립니다. 그게 열리면 왕이 입장했다라고 주장하는 문화재위원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음 추가로 물어본 건데 그걸 떠나서, 확인은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측면으로 올라가는 길은 왕이 올라가는 길로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를 안내해서 그 어좌까지 올라가고 김건희는 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교홍 예, 1분 넣어 드려요.

○이기현 위원 참담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모시는 곳이지 대통령의 부인을 모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비서관실의 3~4인이…… 정정하겠습니다. 부속실의 3~4인이 김건희와 김건희 측근 이배용이 문화재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자리에 배석하고 수행하고 따라다닌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의 대통령비서실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보좌하라고 뽑은 직원들이 대통령의 부인을 대통령처럼 모셨고 그 부인이라는 작자는 왕이 걸었던 길로 어좌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걸 바라보고…… 문체비서관·선임행정관, 막았어야지요. 유산청장, 막았어야지요. 아무도 막지 않은 것입니다. 공직자들 뭐 한 겁니까?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정병국 위원장님, 지역예술도약 지원사업이라고 아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명칭도 생소한데 명칭부터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 취지 내용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료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문화예술위원회 자료 보면 공연 건수만도 봐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2배 이상 많고요. 서울은 7만 건이 넘는데 강원은 천몇백 건이고 세종은 300여 건대 그리고 전시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역시 6000건이 넘고 제주도는 300여 건, 세종은 150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지역 예술인들한테는 기회 제공 및 지원은 약간 필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수도권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었는데 지역에서 발굴된 좋은 작품을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지역에서 중앙연계형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지역 예술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기재부가 48억 원 예산에서 10억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대폭 삭감을 했지요. 약 80% 정도 삭감한 게 맞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진종오 위원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매칭으로, 지역 지원사업은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진종오 위원 매칭인데 너무 이 비중이 그런 것도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매칭이 안 됐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깎인 것인데요. 이

게 일률적으로 이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지역이 그것을 다 따라오기가 어렵고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지자체별로는.

○ 진종오 위원 조금 이따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지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이것에서 부연 설명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 위원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기재부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에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맞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얼마만큼 지역의 예술인들이 좋아하고, 좋은 반응인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매칭을 전제로 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아예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매칭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거듭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기들 논리대로 이렇게 깎였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이 부분도 예산 증액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간에 이게 꼭 더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진종오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종감 전까지 어떻게 어떻게 딱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알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추락 관련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 진종오 위원 확인하셨지요?

○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예,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 진종오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시잖아요, 직무대리시고. 그러면 국감에 나왔을 때는, 물론 당연히 예산 문제 지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만큼은 체크하고 오셨어야 된다라는 게 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건사고 앞으로 좀 더 신경써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알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김장호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술의 지역균형과 현장의 숨통을 트우는 게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의 본질이지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 예술단체와 예술공연장에 예술작품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이 심각한 편중 상태에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간 이 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단체는 총 1109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 단 한 번이라도 선정된 단체는 고작 33%인 367곳뿐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742곳, 즉 전체의 67%에 달하는 업체가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지역의 균형, 공연 사업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 취지된 사업의 취지 자체가 몰각된 거지요?

다음 화면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같은 기간 동안 5회 이상 공연을 수행한 단체는 76곳이에요. 이 소수의 단체가 무려 4년 동안 611건의 공연을 수행했습니다. 즉 전체 선정 건수의 51.6%, 과반을 독식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편중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 계속 화면 좀 보세요.

이렇게 76개 업체가 공연장을 독식하는 동안에 나머지 573건의 기회를 291개 단체가 피가 마를 정도로 치열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심각한 지역예술 편중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짧게.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우리 공연유통 사업의 기본 목적은 지역균형도 물론 일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공연작품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또한……

○조계원 위원 그럼 그런 취지는 하지 말아야지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이거는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서로 매칭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매칭을 시켜 준다기보다는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매칭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말씀을……

○조계원 위원 그런 부분을 계도해서 첫걸음이 중요한 공연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야지요. 보장을 해 줘야지요. 그거 다 차단해 버리면 어떻게 신진 공연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저희들이 차단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76% 정도가 1회만 선정된 단체들입니다, 선정된 단체들 중에. 물론 전체 모수가 작을 수는 있지만, 작은 거는 사실은 전체 예산 사정상 신청한 모든 단체를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시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아니, 시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조계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본래 취지를 되살려서 구체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26년 공모사업부터는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고자 합니다.

○조계원 위원 정병국 위원장님, 나눔티켓 기부사업을 하고 있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눔티켓 사업으로 기부 받은 공연 티켓 32만 430장 가운데 36.6%인 11만 7460장만이 문화향유에 활용되고 나머지 20만 2970장, 63.3%는 사장된 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귀한 티켓들이 세상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기부 현황을 보니까 5년 동안 서울은 22만 5000여 건이 기부됐고 경기도는 3만 3000여 건에 달했는데 충청북도는 단 1건도 기부조차 안 됐어요. 0건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전남 420, 세종 750, 충남 760, 대전 785건 등 아예 비교할 수조차 없이 열악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인데 알고 계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예술단체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곳은..... 그 자체가 불균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하는 단체도 적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용 현황은 더 가관이에요. 최근 5년간 기부된 티켓의 실제 이용 현황을 보면 서울은 6만 8000여 건, 경기도는 2만 4000여 건이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최하위인 세종의 경우에는 고작 38건입니다. 서울과 무려 1810배나 차이가 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 부분도 공연물의 콘텐츠의 질의 차이 때문에.....

○조계원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아예 홍보 자체도 줄었어요. 2023년까지 꾸준히 늘었던 홍보 집행액이 24년부터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 성과가 심통치 않으니까 사실상 홍보를 줄인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다시 그거는 점검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시지요.

○조계원 위원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 지금 고갈될 위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문체위 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 장관으로도 활동하셨는

데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을 막을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질의 전에 잠깐 자료 하나 추가로 더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립오페라단·합창단·발레단 이렇게 국립예술단도 출석해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말씀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국립예술단, 앞서 말씀드린 거기 이외에도 심포니오케스트라 또 국립현대무용단 외 5개 국립예술단에 대해서 공통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사무처 설치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예술인들이 예술감독 등을 맡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좀 덜어 드리고 창작이나 공연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사무처 설치가 논의가 됐었는데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예술단의 저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전까지 이런 통합사무처 설치에 대한 5개 예술단 각각의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승수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박창준 원장 직무대리님, 앞서 우리 현장, 예술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예술교육의 문제점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술강사들 있지요? 학교 예술강사들 지원사업 인건비·사업비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후보 당시에 공약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국비 예산으로, 인건비를 국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예.

○**김승수 위원** 그 공약대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다 편성됐습니까, 인건비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안 됐습니다.

○**김승수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공약이 돼 있었는데 편성하라는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왜 편성을 안 했는가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문체부에서 예산편성을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르게 받았지만.

○**김승수 위원** 작년에도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 비판들, 특히 민주당에서 비판을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을 다시 반영을 시켰었는데, 공약까지 했었으면 당연히 이거는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술강사들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희망고문 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설파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했었어야지요. 이거 국회 와서 증액시키려고 그럽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자꾸 일선의 예술강사들이 이렇게…… 지금 기존의 강사 업무도

할지 안 할지 계속 이렇게 정부의 눈치, 상황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계조차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좀 더 쟁기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리 박창준**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님, 앞서도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이후에 번역 신청 건수도 많이 늘었지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김승수 위원** 늘고 또 지원 예산도 일부 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신청 건수가 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는 확률은 50% 조금 넘는 그런 정도지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 만큼 옥석을 골라 가지고 더 필요한 책자들에 대해서 번역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좀 더 우수한 작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승수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이렇게 문체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버젓하게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도서, 그래서 국민 5만 명이 유통을 중단하라고 문체위에 청원까지 넣은 그런 도서를 무려 6700만 원이나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선선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젊다, 호감도가 높아졌다, 서민을 해치지 않았다,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찬양 도서를 1억 가까이 지원한다는 게 맞느냐 이 얘기지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일단……

○**김승수 위원** 그리고 보면은 진짜 우리 대표적인 근대소설가 이상의 날개라든지 또 대표적인 우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 이런 것들은 다 탈락했어요. 그런데 또 동성애를 포함한 그런 서적은 포함했고 도대체 선정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날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번역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 친구 김정은’인가 그것을 쓴 작가는 누구냐 하면 김금숙이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풀’이라는, ‘Grass’라는……

○**김승수 위원** 작가가 중요한 것이…… 작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책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정은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해서?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까지 다 읽었어요, 저번에 지적할 때. 그리고 한두 개도 아니고 보면은 8번에 걸쳐 가지고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지원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이게 여러 나라 언어로 지원하다 보니까 액수가 커졌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 경쟁이 자꾸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김승수 위원** 그런 만큼 기준을 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선정될 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그런데 이 작가가 사실은 해외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가 돼 가지고 상도 받았고……

○**김승수 위원** 아니, 번역을…… 한강 작가도 번역 책자가 외국에 많이 갔기 때문에 그 것도 노벨상 수상에 어떻게 보면 기여했던 것 아닙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김승수 위원** 우리가 번역을 많이 해 주면 해 출수록 외국에서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외국 도서전에 출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아니, 그런데 그전에 이 사람이 이미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을 작년에, 하비상이라는 상을 받았고 또……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존중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작품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 작품도 있을 테고 이런 문제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번역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그런데 아마도 무조건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보다는 분단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라든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뤘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김승수 위원** 내용을 한번 쭉 저는 다 읽어 봤거든요. 내용을 좀 읽어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라든지…… 자기 이모부까지 사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흥포성, 미사일, 핵무기 이런 데 대한 것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렇게 왜곡되게 찬양을 하니까, 편향적으로…… 특히 만화니까 청소년도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홍보를 돈을 대서, 국민 혈세를 대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에서 특별전이 하나 진행되고 있지요? 어떤 특별전이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손기정 선수 특별전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예, 맞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손기정 선수 특별전인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라는 상설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IOC 홈페이지에 우리 자랑스러운 손기정 선수를 비롯한

열한 분의 성함이 ‘기테이 손’ 이런식으로 일본 이름으로 등재돼 있고 왜 이분들의 이름이 일본명으로 돼 있는지에 병기가 돼 있지 않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을 작년 11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감대를 가지시고 손기정 선수에 대한 특별전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게 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출기차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뭐라도 된다라고 느낀 게 IOC가 그렇게 뻣뻣하게 굴다가 올해 화답을 해서 올 초부터 먼저 9명의 선수들의 프로필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관련된 기관장들께서도 우리 선수들의 역사적인 성함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날 특별전 개막식에 저희 문체위원회들을 다 초대해 주셔서 저도 갔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전시가 2개가 있었습니다, 전시물이.

지금 PPT로 보여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뭐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부상으로 손기정 선수가 받은 청동투구인데 이것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진품입니다.

○ **배현진 위원** 맞습니다. 1936년 당시에는 이렇게 그리스의 어떤 문화유산을 올림픽 우승자에게 부상으로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투구가 지금 값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려운 건데 제가 이게 왜 인상적이었냐면요. 다음 장면 보실까요? 이렇게 중앙박물관에서 멋지게 전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손기정 선수가 뛰었던 그 시절을 저희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분위기에 굉장히 압도당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께서도 반가사유상에 관한 사유의 방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비슷한 잘된 전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련되고 특별한 전시를 한 것은 그 담당 학예사께 꼭 치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 **배현진 위원** 손기정 선수가 받으셨던 이 부상을 ‘이 투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다’라고 하고 재단을 통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멋진 장면을 더 많은 세계의 관람객들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전시관에 우리 국내 처음 소개된 뉴욕타임즈 신문의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이걸 소개해 주시던 학예사께서도 잠시 말을 잊지 못했는데 ‘한국 출신의 청년은 마침내 결승선에 다달았다. 그의 얼굴은 대리석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라고 쓰여진, 처음으로 공개된 뉴욕타임즈의 기사의 한 단락이었습니다.

그 옆에 이 얼굴이 붙어 있었는데요. 대리석처럼 굳은, 올림픽에서 최초로 우승을 하고도 지금 본인 앞에 일장기를 가린 손기정 선수의 이 굳은 얼굴을 오시는 관람객이 그 누구보다도 잘 느낄 수 있겠구나 하고 참 잘된 전시였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곳이요 따분하고 지겹다가 아니라 들어가서 내 마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시 많이 만

들어 주시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제가 그 이전에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어요. 동북공정 전시, 친일 전시 비롯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된 전시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찾아오시는 외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좋은 전시 계속 많이 기획해 주셔서 앞으로 500만 이아니라 1000만, 2000만의 관람객을 모으는 그런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저희 열심히 해서 더 멋진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다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썼는데 관장이 되고 나서는 주는 만큼 일한다로 내가 그 형식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명언이십니다. 보인 만큼 느낀다.

(웃음소리)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앞서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도 예술인 안전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해 8월에 상임위 현안질의할 때 제가 예술인 산재 문제를 짚었습니다. 산재 처리 비율이 11.5%, 산재보험 가입률이 23.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정용욱 대표이사님, 복지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같은 보험사무 대행해 주고 계시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도, 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5%밖에 가입률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형배 위원** 가입률이 낮고, 또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임의가입 형태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민형배 위원**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른바 기간 탄력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끝났는데 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는. 이게 제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뜻일 텐데, 이거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재 신청서인데 사업장 주소를 쓰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술인인데 오늘은 서울에서 공연하고 내일은 광주에서 공연해요. 사업장 주소 어디로 적어야 됩니까?

사업장 주소를 적지 않은 공연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입증을 못 할 거라는 것 때문에 가입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적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제도는 당연가입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용욱** 예. 그리고 지금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래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술인 전용 산재보험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주는 만큼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주는 만큼, 그러니까 일한 만큼 받으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기관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수지차 보전기관 중에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이 관장님 산하에 있었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박물관 문화재단입니다.

○ **민형배 위원**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아무튼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또 인원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래서 조금 순서는, 원리적으로는 관장님 말씀이 맞는데 순서는 어쨌든 일한 만큼 받는 방식이라도 제대로 꾸리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유산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국중박에서 또 뭘 하셨대요? 분장대회를 하셨더만요. 저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상을 차지한 화제의 참가작 그래 가지고 유퀴즈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유퀴즈에서 자꾸 국중박의 이런 뜻즈나 저런 행사들이 나오는데, 올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했는데 이 기간에만 무려 5만 명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중박의 분장대 보면 저게 한 6000명쯤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어마어마한, 무슨 가수 공연해도 저렇게 많이 오기가 정말 스타들이 아니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댓글도 끝내 주더라고요. ‘아이디어 진짜 좋다’, ‘국중박 감다살 그 자체다’, ‘매년 해야 된다’ 이런 칭찬들이 저렇게 있던데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분장대회는 소박하게 시작해서 1등 상금이 1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분장대회를 해서 본격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젊은이들 페스티벌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래서 케미션이나 분장대의 인기처럼 K-컬처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지원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합대책을 마련해 봐라’ 그러셨는데 구상을 하고 계시면 길지 않게 그러나 충분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여야 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까지도.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자유의 방 같은 식으로 전시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또 디지털을 이용한 영상실, 실감 영상실, 에밀레종 실감 이 모든 것들을, 옛날에는 박물관 하면 고리타분한 곳으로 인식되었던 것을 현대미

술에 설치미술의 개념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한 것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이 먼저 제시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더 뛰어넘는 것을 본 게 분장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를 더 만들어서 500만 시대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는 그 마지막 멘트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역량이 모여서 전통문화를 활용한, 전통유산을 활용한 K-컬처 확산 이런 것에 방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유흥준 관장님, APEC 앞두고 지금 우리 경주박물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임오경 위원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 점자를록 보이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임오경 위원 보이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저게 노란색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벗겨졌네요.

○임오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이세요?

하나 더 띄워 줘 보세요.

여기에는 보이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여기도 벗겨졌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국립경주…… 이게 노란색으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전 보여 줬던 게 경주박물관에 깔려 있는 점자를록입니다. 저기 가운데에 있는 게 진짜 한 줄이 점자를록이잖아요.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 하겠다고 안 보이는 점자를록 깔았던 것과 똑같아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이거는 세월이 지나 가지고서 지워진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 점자를록은 눈에 잘 보이는 샷노란색으로 까셨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임오경 위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점자를록 깔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시각장애인 유도선 기능을 못 하지요.

○임오경 위원 그렇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점자를록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립경주박물관은 일부러 바

닥재와 유사한 색을 썼더라고요. 이거 불법 맞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이 누리는 문화의 수준이 그 국가의 문화의 수준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장님께서 국립박물관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전수조사하셔서 잘못된 점자블록이 있으면 모두 바꿔 주시고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시정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앞서 야당 위원님도 칭찬이 한 말씀 있었는데 저도 칭찬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 채널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1000만 뷔 넘어갔을 겁니다.

○임오경 위원 10만 돌파를 했습니다. 총 조회수가 3200만을 기록했고요.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이라는 국립진주박물관의 정체성에 맞게 조선시대의 각종 전쟁과 전투에 관한 차별화된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며 중앙박물관보다도 더 많은 수의 구독자를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콘텐츠로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영상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저희도 놀랐습니다.

○임오경 위원 315만 조회수를 기록한 ‘사르후’ 영상은 영상 시청자 중 52%가 해외 시청자라고 합니다. 우수한 콘텐츠가 해외 누리꾼들에게 올바른 우리 역사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원 아끼지 말고 더 하셔야지요. 우수한 영상 콘텐츠를 더욱더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욱 대표님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금여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면 이게 합법입니까? 우리가 금여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면 이것이 합법일까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그렇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임오경 위원 문체부에서 의견을 한번 제가 들었더니 ‘연예인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판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신은향 예술정책관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정산금 대신 상품권 받아도 된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들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드하우스는 소속 연예인과 합의한 비율에 따라서 가상화폐로 현금 대신 지급을 한답니다. 저는 이 부분 전수조사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술인복지재단도 그렇고.

신은향 예술정책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 한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오경 위원** 아직은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갑을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아무리 어느 정도 합의한 비율에 따라서 가상화폐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급여로,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비트코인으로 급여가 지급된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정산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또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술인복지재단 정 대표님도 꼭 이 부분에 함께 참여하셔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십시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고개를 끄덕임)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국립장애인도서관장님 계시지요?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세요.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감사합니다.

○**박정하 위원** 앞서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지만 이용률이 높지가 않은 상황이 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자책이니 이런 것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5년 전에 문체부 1급 소속기관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1차 소속기관.

○**박정하 위원** 1차 소속기관이 된 거지요?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박정하 위원** 그런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앙도서관에 그냥 있는 거지요?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맞습니다. 1층, 8층……

○**박정하 위원** 1층하고 6층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강남성모병원 맞은편인데……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 경사가 심한……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심합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쉽지 않은……

○**박정하 위원**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장애인도서관은 아닙

니다만 그 근처에 가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허덕거릴 정도로……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말로만 그냥 장애인 배려하자고 그리고 이해하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만 보면 그냥 말로만 한 것 같아요.

20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계속 그런 상황으로 있는 거지요?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혹시 문체부에 건의 같은 건 해 보셨어요?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지금 저희가 독립청사 건립을 위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 연구용역은 올해 2월에 끝났고요. 3월에 예타 신청을 해 놨는데 그때 미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에 또 재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박정하 위원** 다시 신청, 8월에?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박정하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온대요?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박정하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잘 모르시고요?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지금 10월 말쯤에 재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또 저희가 국유지 사용 승인을 신청해 놓고 11월에 사용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구나.

그마저도 지금 중앙도서관은 열여섯 살 이상만 이용할 수 있지요?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이용규칙이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열여섯 살 이하의 장애인 학생들은 도서관 전혀 이용할 방법이 없어요?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지금으로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가야 되지만 사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도 장애 자료가 별로……

○**박정하 위원** 없는 상황이지요?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박정하 위원** 문체부, 이것 문화정책관님이 담당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

○**박정하 위원** 지역문화정책관, 이 건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예, 저희 장애인도서관하고 같이 방금 말씀하신 청사 문제는 그동안 사실 부지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돼서 시간이 걸렸던 측면이 있고요.

○**박정하 위원** 당장에 지금 16세 미만의 학생들 쓰는 방안도 중앙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야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종감 전에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 또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양문석 위원 (손을 둡)

○위원장 김교홍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제가 ‘일개 아녀자’라는 표현을 써서 불편하신 분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정용석 사장과 질의하면서 반말투가 계속 나와서 또 불편함을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본인과 그다음에 저의 반말투를 듣는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기현 위원 저……

○위원장 김교홍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자료제출요구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현대미술관에게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의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반출된 미술품에 대한 기록 그리고 반환된 기록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정상적으로 반출됐고 반환됐다라는 보고만 하고 어떤 것인지 밝혀 주지 않으셨습니다.

국중박 그리고 현대미술관의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관저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 반출된 작품 기록 그리고 반환 기록들 다음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위원장 김교홍 꼭 그렇게 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립중앙박물관 등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경회루 및 균정전 비공개 방문과 국보 훼손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서는 특별전 기획 시 박물관의 주도적 역할 강화, 외국인 방문객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그리고 방문객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개선, 인력 확충, 입장료 유료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무용 분야 비상임위원 위촉 및 무용 분야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도서관이 소장 중인 헌법 위반 및 식민사관이 기술된 사회 교과서는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어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지역 박물관 지원 확대를 통해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증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청년 예술활동 증명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미국의 소리 한국어 광복절 방송 사료를 전시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K-컬처 300조 원 달성을 및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와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오늘 피감기관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별도로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은 손솔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4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15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손솔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정연옥 조계원 조은희 진종오

○ 청가 위원(1인)

김윤덕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 피감사기관 참석자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유홍준
학예연구실장 이애령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김희섭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장상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한수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횡금숙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성희
 기획운영단장 박승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정용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사무처장 송시경
 예술의전당
 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장호
 본부장 김범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용욱
 경영본부장직무대리 김가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리 박창준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전수용
 경영기획본부장 이정근
 국립극단
 단장겸예술감독 박정희
 국립발레단
 단장겸예술감독 강수진
 국립오페라단
 단장겸예술감독 최상호
 국립합창단
 경영지원팀장 한상욱
 국립현대무용단
 단장겸예술감독 김성용

서울예술단

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직무대리 박재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출석 증인

장동광(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출석 참고인

김정환(국립중앙도서관 공무직)

남웅(인권활동가/미술평론가)

박성혜(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

박주옥(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송치훈(한국문화진흥㈜ 노동조합위원장)